

#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 일시 \ 2011.5.2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당

주최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 일시 \ 2011.5.2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당

주최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 일시 : 2011. 5. 20(금) 14:00~17:0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

##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30-14:40	1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통일교육원) ○ 축사(교육청)	▶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인사말 : 개발협력부장 ▶ 축사 : 교육감
14:40-15:30	50분	○ 정책설명 - 남북관계 현황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교육원 - 정분희 학교통일교육지원팀장
15:30-15:40	10분	○ 휴식	
15:40-17:00	80분	○ 워크숍 - 발제 I, 발제 II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 정경애 장학사 ▶ 발표자(교사 등 2명) - 강덕부(통일교육위원) - 김은정(서귀중앙초 교사) ▶ 토론자(교사 3명) - 황은실(도남초 교사) - 김병성(서귀포여중 교사) - 송 상(중앙여고 교사)
17:00		○ 폐회	
18:00-20:00	120분	○ 교육청 관계자 발표 · 토론자 등과 만찬	▶ 통일교육원



# 목 차

1. 특강자료  
남북관계 현황 및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7  
정 분 희(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지원팀장)
2. 발제자료 I  
통일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 ..... 19  
강 덕 부(통일교육위원)
3. 발제자료 II  
끌림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 함양 ..... 31  
김 은 정(서귀중앙초 교사)
4. 토론자료 I  
초등학교 통일의식 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자세 ..... 51  
황 은 실(도남초 교사)
5. 토론자료 II  
통일시대를 대비한 학교통일교육 ..... 77  
김 병 성(서귀포여중 교사)
6. 토론자료 III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모색 ..... 103  
송 상(중앙여고 교사)





# 남북관계 현황,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정 분 희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지원팀장









# 통일교육의 방향 및 학교 통일교육

2011. 5. 20.



## 목 차

● 들어가며

●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 학교 통일교육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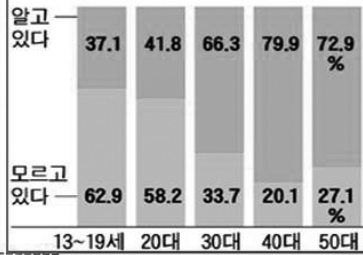
## 청소년 통일의식

### 6·25전쟁 발발 년도 인지도(3.25-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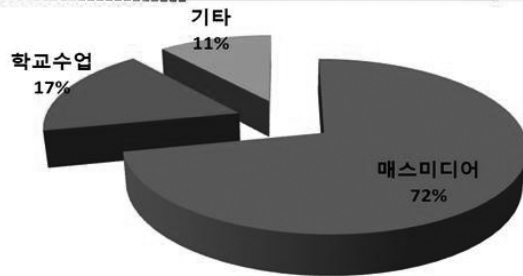


### 6·25 전쟁 발발연도 인지도

단위: %, 한국갤럽



통일 및 북한 정보 취득 by



## 통일교육 환경

### 1.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미래에 대한 관심 점증

- 통일문제를 실천적 관점에서 담당하고 대비
- 새로운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 2. 미래세대의 통일·안보의식 고취 필요

-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통일문제에 무관심
- 청소년들의 50~60% 정도가 6·25전쟁 발발연도 모르는 현실

### 3. 남북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

- 집단간·세대간 차이를 넘어 조화와 통합 노력 필요
- 북한실상, 한반도 안보상황,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대한민국 헌법

**전 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통일교육지원법

### 2조1항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

### 3조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



## 통일교육의 지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통일을 대비한 교육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우리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교육

안보적 현실 교육

### \* 통일교육 목표의 변천

반공 → 승공 → 국토통일 → 민주적 평화통일 → 북한공산체제 실상파악/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 민족공동체 인식/인류공영에 기여 → 북한바로알기(북한동포이해)/민족동질성 회복



## 통일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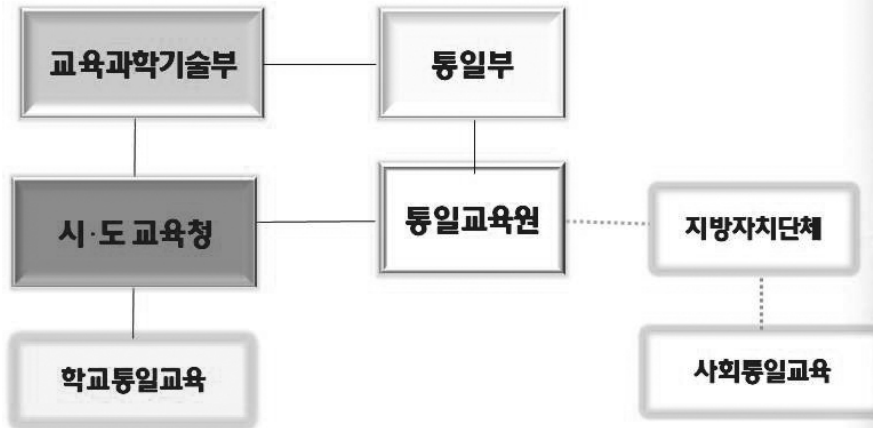
### ▪ 목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지원법)

### ▪ 기본방향



## 학교통일교육 지원 체계



통일부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통일글짓기

###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실시



- 2010년 총 156회, 32,859명 교육
- 2011년 총 224개교, 52,000여명
- 특강, 퀴즈, 게임, 통일신문 만들기 등

### ✓ 통일글짓기 대회

- 초·중·고교생 대상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 ※ 2010년 총 105만명 참가(16개 지역)

통일부

## 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원

- '09년 : 20개교 → '10년 : 32개교 → '11년 : 48개교  
\* '10년 : 초 12, 중 15, 고 5
- 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교사역량 강화 지원



통일부

## 통일교육 강좌 및 교사 대상 워크숍

- 교장(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방향, 통일교육의 내용, 교육 기법 등에 대한 토론 및 정보 공유



- 교장(감) 대상 『통일교육강좌』 지원  
- 2011년 3회 실시 예정  
\* '09년 부산·대구·경북지역 개최  
\* '10년 경남(6.23), 대전(7.28), 충남(10.20), 충북(12.10) 실시



- 도덕·사회과 교사 대상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진행  
- 2011년 5회 실시 예정 (울산·경남·제주·경기·전남)  
\* '09년 제주·경북·강원·충북·충남 지역 개최  
\* '10년 전북(3.26), 대전(6.25), 대구(10.1), 광주(10.29), 인천(12.3) 실시

통일부

## 대학생 통일교육

### ✓대학통일논문 현상공모

- 1982년 이래 매년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논문 공모
- 대학사회 내 통일 관련 학술연구 촉진, 2011년 30주년 특별공모 예정
- ※ ' 10.12.23 시상(최우수 1편 등 총11편)

### ✓대학생 통일포럼

-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발표·토론하는 장



※ 2010년 총 18개 대학 지원, 1,580명 참석, 2011년 확대 지원 예정



## IPTV 통일교육 콘텐츠

- 전국 초중등학교에 보급된 IPTV 콘텐츠 개발
- 2010년 교과과정과 연계한 VOD(17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8편) 개발
- 2011년 학교현장 활용도 제고 및 콘텐츠 추가 개발

###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교육적 효과



현장 활용도 제고

### 학교 IPTV 활용





## 교재 및 발간물

### ✓기본교재



•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를 다룬 「북한이해」와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다룬 「통일문제이해」 발간

※ ' 10년 45,000부 → ' 11년 10만부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 제24호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발간
- 제25호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제26호 「학교통일교육의 발전 방안」
- 제27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2011년 신규과제

### ❖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 개설, 지원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각 대학내 통일문제 유관 연구소와 협조

### ❖ 「통일미래글로벌리더십 캠프」 실시

- 전국 고교 1-2학년 대상
-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설명, 통일미래비전 특강, 영어 스피치 경연대회, 통일음악회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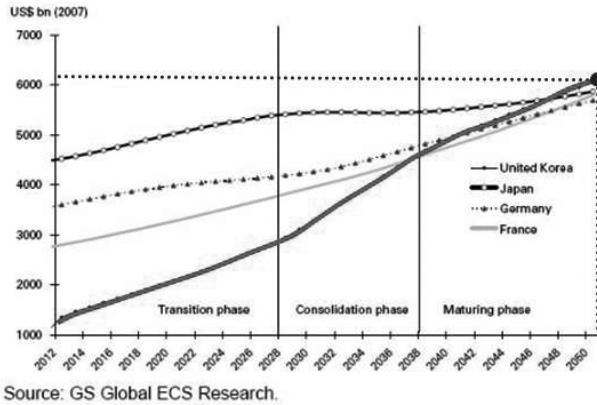
### ❖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 청소년·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북한 정세 자료 등



## 통일의 미래상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2009, 골드만삭스 보고서)



- 남북 통일시 30~40년 내 佛, 獨, 日 등 G7 추월
- 2050년 통일한국 GDP 6조 560억 달러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

미래 우리 국가발전의 최대 계기는 한반도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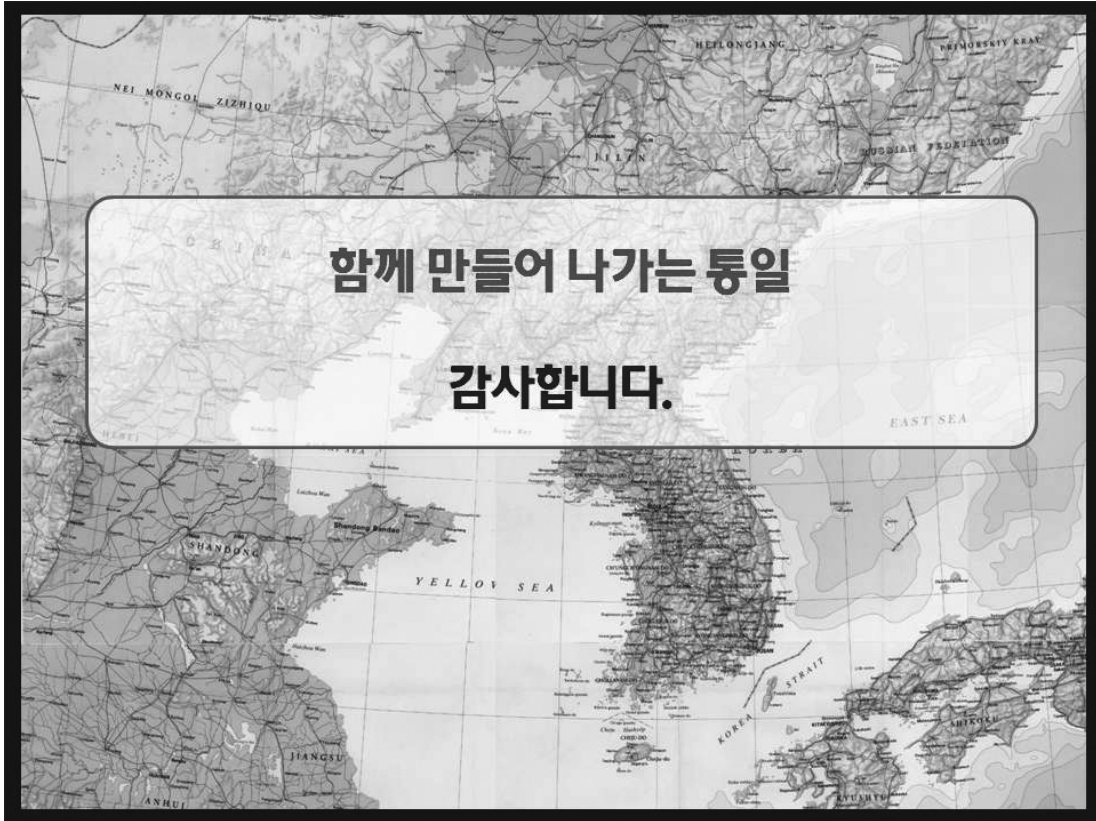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에 의한 통일이 될지 예측 곤란

-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달성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우리 모두의 과제

- 정부가 중심이 되어 차질 없이 준비
- 통일대비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







# 통일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

강 덕 부  
통일교육위원, 도교육청 장학지원과장





# 통일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

강 덕 부 (통일교육위원, 도교육청 장학지원과장)

북한은 6·25전쟁 후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비롯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사건, 1987년 KAL기 격추사건, 그리고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사건 등을 저질렀다. 북한이 이처럼 폭력, 무력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때만 요란하고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슬프고 불행한 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기억하고 되풀이 되지 말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방 후 많은 슬픈 일,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만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무력도발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현장에서 우리의 통일안보교육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에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안보교육이 절실하고 더 많이 실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학교통일안보교육의 현실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받은 통일교육 연구 시범학교와 일부 관심 있는 학교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만일 학교 관리자들과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통일관, 안보관을 갖지 못한다면 곧바로 학생들에게 이어져 통일주체가 될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무관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 보다 학교 관리자들이 먼저 최근 남북관계 현황, 국제정세 등을 잘 파악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튼튼한 안보의식, 올바른 통일관, 바른 국가관 등을 심어 줄 교육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시도 교육감의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관도 문제이다. 어느 교육감은 금년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제외했다고 한다.

이는 너무나 한심한 발상이 아닐까. 지금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한창 안보 및 통일 관련 현장 체험을 해야 할 시기인데 정작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이미 큰 틀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완성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통일한국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북한관, 통일관을 제대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이 아닐까.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들의 교육감들은 이런 일선 학교의 통일교육을 최대한 지원해주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짐하자. 천안함 1주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희생한 46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투철한 안보관과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이 같은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2011. 05.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I. 2011년 통일교육 환경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통일 안보교육 강화

◇ 북한이 우리사회 내부 분열 조장

범국민적 국론 결집

2010년 8.15 경축사 이후 정부의 통일 공론화 노력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II. 추진방향

- ◇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 ◇ 통일 준비 국민공감 확산
- ◇ 미래세대 통일 리더십 배양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III. 2011년 세부 추진계획

#### ◇ 학교 통일안보 교육 계획

##### ● 학교별 통일교육 계획 수립 · 추진

- 교육대상 : 초, 중, 고 183개교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다양한 학예 · 문예행사 실시 및 참여

##### ●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제주지역 통일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주최
- ↳ 바람직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탐색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Ⅲ. 2011년 세부 추진계획

#### ◇ 학교 통일안보 교육 계획

##### ● 통일교육 교재 구입 · 보급

- 공인된 통일안보 교육교재 활용
- 보급도서 : 통일(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 5학년용
- 보급대상 : 초등학교 5학년 8,100명

##### ● 관련 행사 지원 및 협조

- 통일문예, 통일퀴즈대회, 제8회 통일한마당 대회, 통일골든벨 등
- 통일안보교육 관련 현장 체험활동 권장 ➡ 고등학생 호국 대행진 등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Ⅲ. 2011년 세부 추진계획

#### ◇ 사제동행 통일안보 현장체험(안)

##### ● 목적

- 분단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킴
- 휴전선, 6.25 당시 전적지 등 답사 ➡ 분단의 아픔 느낌
- 연평도 포격 현장 답사 ➡ 통일안보 의식 강화

● 시기 및 기간 : 2011년 7월말, 1박2일

● 대상 : 중 · 고등학생 75명 내외

● 내용 : 연평도 포격 현장, 해병 연평부대 등

● 협조 :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 자료집 발간 : 통일안보교육 자료로 활용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Ⅲ. 2011년 세부 추진계획

#### ● 2010년도 실적

시기 및 기간 : 2010. 7월, 10월 (2회)

대상 : 중 42명, 고 34명, 지도교사 15명

내용 : 경기도 철원, 연천지역 안보체험지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  
김신조 침투로, 상승OP, 태풍전망대 등 체험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Ⅲ. 2011년 세부 추진계획

#### ◇ 나라사랑 · 통일안보 명예교사 초청 강연회

##### ● 목적

- 선열들의 독립투쟁 정신 계승
- 6.25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계승 발전

##### ● 명예교사 위촉 : 15명

- 광복회원, 무공수훈자 회원, 6.25참전용사, 탈북자 등
- 명예교사 교육감 위촉장 수여

##### ● 운영기간 : 2011. 3. 1. ~ 2012. 2. 28.

##### ● 운영방법

- 나라사랑 · 통일안보 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계획 및 강사 홍보
- 학교수준에 적합한 강사 초빙 초청강연의 날 운영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안보교육

## Ⅲ. 2011년 세부 추진계획

### ● 2010년도 실적

운영 기간 : 2010. 3. 1. ~ 2010. 10. 31.

명예교사 위촉 : 15명

광복회원, 무공수훈자회원  
6.25참전 용사 탈북자 등

운영 실적 : 30개교, 10,853명

# 감사합니다





# 끝림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 함양

김 은 정  
서귀중앙초 교사







# 끌림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 함양

김 은 정 (서귀중앙초 교사)

- I. 용어의 정의
- II. 운영 과제
- III.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IV. 통일교육 수업 모형의 재구성 과 적용
- V.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전개
- VI. 통일 체험활동 자료 모음

본교가 2010학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실천해 온 과제들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되고자 한다.

## I. 용어의 정의




### 끌림통일교육 활동

평화통일 의지를 신장시키고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고 이를 지속시키고자 실행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통일교육 교수·학습 활동 및 제반 통일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평화통일 의지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우리 스스로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북한 현실의 올바른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통일에 대한 실천적 의지 및 습관화를 포함한다.

## II. 운영 과제

-  1.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  2. 통일교육 학습 모형을 재구성하여 적용한다
-  3.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전개한다


### 1.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 통일 도서 구입 및 활용

---

통일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학급 내에서 돌려 읽기 방법을 통해 전 학생이 해당학년의 도서를 읽도록 하고, 통일 독서 퀴즈 대회 및 통일 독서 감상문 대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 도서 구입 목록(2010. 3.~2011. 4. 현재)

연번	도서명	저자	출판사	비고
1	김구 백범일지	팽현준, 김세라	주니어 김영사	
2	꽃할머니 (양장)	권윤덕	사계절	
3	끝나지 않은 겨울 (양장)	강제숙	보리	
4	나는 통일이 좋아요	정혁	대교출판	5·6학년
5	나는 평화를 꿈꿔요	유니세프	비룡소	
6	남북공동초등학교	신천희	문원	
7	내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아	김진섭	여우고개	3·4학년
8	내 어머니 사는 나라	이금이	푸른책들	
9	땀 발 늘어져라	권정생	한겨레 아이들	
10	두레실 할아버지의 소원	전필식	행복한 아이들	1·2학년
11	목수들의 전쟁	김진경	문학동네	
12	무기팔지마세요	위기철	년사	

13	문익환	김남일	사계절	
14	밥데기 죽데기	권정생	바오르 딸	
15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양장)	이억배	사계절	
16	삐용이네 꽃밭	조월레	우리교육	
17	선생님 6.25가 뭐예요	박찬희	꿈과희망	
18	겨레의 통일과 평화	김병언	길벗스쿨	3·4학년

연번	도서명	저자	출판사	비고
19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루스 반더 제	맑은가람	
20	에니의 끝나지 않은 축제	미셸 멀더	초록개구리	
21	오선지 위에 평화를 그리다	김바다	우리교육	
22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황근기	초록우체통	
23	우린 개성으로 수학여행 간다	이광수	올버출판사	5·6학년
24	옴마이야기	김승옥	사계절	
25	육촌형	이현주	보림	
26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산하	
27	작다고 깔보다 큰 코 다쳐요	이재복	산하	
28	전쟁기념관	박재광	주니어김영사	
29	전쟁은 왜 일어날까	질페로	다섯수레	
30	참 좋다, 통일세상	임수경	황소걸음	
31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산하	
32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신석호	한림출판사	
33	평양 프로젝트	오영진	창비	
34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웅진주니어	
35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	오노 카즈오 외	초록개구리	
36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	유엔과국제활동 정보센터	한겨레아이들	
37	평화를 부탁해 (양장)	김경연	노란상상	1·2학년
38	평화를 지킨 사람들	이시이 쓰토무	초록개구리	
3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산하	

## IPTV 통일교육 콘텐츠의 활용

통일부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된 교과용 콘텐츠와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통일교육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셋탑박스를 컴퓨터에 장착하여 IPTV 콘텐츠에 접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IPTV 가입신청서 작성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전체콘텐츠 카테고리 별

**전체** / 초등 / 중등 / 고등

- 교과과정 <
- 초등내신 <
- 중학내신 <
- 고등내신/수능 <
- 다큐/문화교양 <
- 창의적체험활동 <**
- 방과후 학교 <
- 특마킹라이브러리 <
- 방송사별다시보기 <
- 학급경영자료 <
- 스페셜관 <

창의적체험활동

- 인성·인권·시민
- 환경/녹색 교육
- 경제·소비자
- 보건·성·안전
- 진로
- 정보화 및 정보 윤리
- 문화·예술·여가
- 국제 이해·다문화
- 토론·논술 교육
- 한국 정체성
- 통일교육**
- 학습만화
- 계기 및 시사 교육
- 통일**

- 한국 정체성
- 통일교육
- 초등 저학년**
- 1회 수업용
- 3회 수업용
- 10회 수업용**
- 초등 고학년
- 중고등
- 특별기획
- U&I
- 미리 보는 통일 한국...
- 남북한 언어의 차이

54	<b>[02차시] 2학년1반, 북한 어린...</b>	수업꾸러미	11/03/25	보기   영상세   썸
53	[03차시] 속모는 평양아가씨	수업꾸러미	11/03/25	보기   영상세   썸
52	[04차시] 김치와 냉면	수업꾸러미	11/03/28	보기   영상세   썸
51	[05차시] 더미구를 많은 날겨...	수업꾸러미	11/03/29	보기   영상세   썸
50	[06차시]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수업꾸러미	11/03/29	보기   영상세   썸
49	[07차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수업꾸러미	11/03/29	보기   영상세   썸

###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화면

## 통일교육 전시 코너 운영

학급별 통일 및 북한 관련 특색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복도 및 계단을 활용한 전시 코너를 운영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 통일 관련 학급 특색 코너 설치 계획(예시)

학 년	주 제	장 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과 관련한 동요</li> <li>○ 통일교육과 관련한 동요 경필쓰기</li> <li>○ 그리기(태극기, 우리나라, 무궁화 등)</li> <li>○ 기타</li> </ul>	교실 뒤 게시판 (복도쪽으로 1/3 공간 확보)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염원하는 동시쓰기 (표지, 도화지 이용 글씨는 싸인펜, 네임펜 등 크고 뚜렷하게 작업하여 시화작업하기)</li> <li>○ 통일 염원 표어 쓰기</li> <li>○ 기타</li> </ul>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탐구 보고서 (북한의 생활과 남한의 생활의 비교, 통일이 되어야 하는 까닭 등)</li> <li>○ 셔츠 디자인하기 (통일된 나라, 손잡은 모습 등을 도화지를 셔츠처럼 잘라서 색칠하기)</li> <li>○ 새터민과의 인터뷰 후 글짓기 작품</li> <li>○ 기타</li> </ul>	



### 통일교육 전시 코너


## 2. 통일교육 수업 모형의 재구성과 적용

### 통일교육 지도 요소 추출

학년별, 교과별로 통일교육 관련 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학년 대상으로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전개하고 있다.

### 통일교육 지도 요소 추출(예시)\_ 1학년

교과	지도 시기	통일 영역	단원 (차시)	주제	지도 내용
국어 (1-1 듣·말)	5월 1주	북한 이해	3. 마음을 나누며(3/4)	북한의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언어 알아보기</li> <li>◦ 남북한의 언어 비교하기</li> </ul>
국어 (1-1 쓰기)	6월 4주	통일노력	5. 생각을 펼쳐요(4/4)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어린이와 하고 싶은 일 그리기</li> <li>◦ 간단하게 편지쓰기</li> </ul>
국어 (1-2 읽기)	12월 4주	통일 필요성	7. 상상의 날개를 펴고 (6/6)	북한의 옛날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 소개하는 글쓰기</li> </ul>
국어 (1-2 쓰기)	11월 2주	통일노력	5. 더 알고 싶어요(4/4)	북한 친구에게 우리가족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알아보기</li> <li>◦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비교하기</li> </ul>
바른 생활 (1-1)	4월 3주	북한이해	1. 즐거운 학교생활 (4/4)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교통신칙에 대해 알기</li> <li>◦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비교하기</li> </ul>
슬기로운 생활 (1-1)	4월 4주	북한 이해	2. 봄이 왔어요(3/6)	북한의 꽃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꽃 목단 알아보기</li> <li>◦ 무궁화와 비교해 보기</li> </ul>
즐거움 생활 (1-2)	9월 2주	통일미래	1. 나의 몸 (8/12)	통일체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짝과 함께 통일체조 해보기</li> <li>◦ 통일 후 북한 친구들과 통일 체조하는 모습 상상하고 느낌 말하기</li> </ul>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지도 계획(예시)\_ 5학년

구분	지도 시기	통일 영역	주제 및 지도 내용	차시	투입 자료
재량 활동	4월 3주	통일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li> <li>- 끝나지 않은 전쟁</li> <li>- 안보 의식의 필요성</li> </ul>	1/10	IPTV 콘텐츠, 활동지, 관련 도서
재량 활동	4월 5주	통일 필요성, 통일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li> <li>- 북한의 자원 활용</li> <li>- 분단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 기획하기</li> </ul>	2/10	IPTV 콘텐츠, 활동지, 관련 도서
재량 활동	5월 3주	북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으로 왜 나뉘었나요?</li> <li>- 남북 분단의 과정</li> <li>- 6·25전쟁</li> </ul>	3/10	관련도서, 활동지
재량 활동	6월 3주	북한 이해, 통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를 만드는 경제 협력</li> <li>-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li> <li>- 남북 경제 협력</li> </ul>	4/10	IPTV 콘텐츠, 통일교과서
재량 활동	7월 2주	북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의 달라진 언어생활</li> <li>- 표준어와 문화어</li> <li>- 문화어 사전 만들기</li> </ul>	5/10	활동지
특별활동	9월 2주	통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눠요.</li> <li>-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li> <li>-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li> </ul>	6/10	IPTV 콘텐츠, 관련도서
특별 활동	9월 4주	통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의 생태공원 DMZ</li> <li>-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DMZ</li> <li>- 분단의 비극이 만들어 낸 천연의 생태 공원</li> </ul>	7/10	관련도서, 활동지
특별 활동	10월 2주	북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명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li> <li>- 고구려의 발자취를 찾아</li> <li>- 평양 여행</li> <li>- 개성 여행(고려의 숨결을 찾아)</li> </ul>	8/10	통일교과서, 관련도서, 활동지
특별 활동	10월 4주	통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li> <li>- 외국의 통일 사례</li> <li>-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li> </ul>	9/10	IPTV 콘텐츠, 활동지, 관련 도서




## 통일교육 수업 모형 재구성 및 적용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업 모형으로는 집단탐구 수업 모형, 비교분석 수업 모형, 가치갈등 수업 모형, 토의 수업 모형 등이 있다. 이들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학습단계 및 과정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등을 본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 통일교육 수업 모형의 재구성

구분	집단탐구 수업 모형	비교분석 수업 모형	가치갈등 수업 모형	토의 수업 모형
특징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통일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남북한의 각종 분야와 요소에 대한 비교에 효과적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됨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는 수업 모형
학습 단계	상황의 제시 ↓	상황 제시 ↓	갈등 사태 제시 ↓	문제의 인식 ↓
	탐구 문제 설정 ↓	탐구 문제 설정 ↓	갈등 가치 확인 ↓	문제의 탐구 ↓
	탐구 계획 수립 ↓	탐구 계획 수립 ↓	가치의 명료화 ↓	문제의 토의 ↓
	탐구 활동 전개 ↓	탐구 활동 전개 ↓	문제 명료화 ↓	
	발견 결과 발표 ↓	탐구 활동 정리	가치 선택 결과 예상 ↓	토의의 평가 및 신념화
	탐구 활동 평가		선택에 따른 근거 발표	
통일교육 영역	통일 필요성	북한 이해	통일 미래	통일 노력

\* 단, 통일교육 영역은 본교가 통일교육 내용 체계 분석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함을 밝힌다. 또한 통일교육 영역에 따라 적용하는 통일교육 수업 모형은 일반적인 예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예시)

일시	2011. O. O.(O) O교시	대상	2학년 0반	지도교사	O O O
단원	4. 통일을 향해서	차시	2/4	교과(쪽)	바생(46~47)
학습주제	북한 어린이의 생활		수업 모형	비교분석 수업 모형	
학습목표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통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통일교육 영역	통일 필요성	북한 이해	통일 노력	통일 미래	
		○			
교수·학습 자료	IPTV 통일교육 콘텐츠(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 동영상), PPT, OX판, 학습지, 음악 파일, 반주 파일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상황 제시	마음열기 상황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기</li> <li>■ 동기 유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조사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반 어린이들이 북한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발표하기</li> <li>- 설문 결과 제시(궁금증 1위.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li> </ul> </li> </ul> </li> </ul>		5	◆PPT
	탐구 문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확인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통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div>	2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활동 안내하기</li> </ul> <활동 1>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 살피기 <활동 2> 통일 노래 가사 바꾸기 <활동 3> 통일 노래 발표하기			
탐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활동1&gt;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시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시청</li> </ul> </li> <li>• OX 퀴즈 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 풀기</li> <li>- 북한과 남한 어린이 학교생활 모습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li> </ul> </li> </ul> </li> </ul>	10	◆IPTV 동영상 ◆OX판  □비교를 통한 우열 가리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탐구 활동 전개	통일 노래 가사 바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2〉 통일 노래 가사 바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곡 '나는 나는 자라서' 부르기</li> <li>• 통일 노래 가사 바꾸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이 드러나도록 통일 노래 가사를 바꾸도록 안내</li> <li>- 바꾼 가사에 맞추어, 동작 정하기</li> </ul> </li> </ul> </li> </ul>	20	◆ 학습지, 음악파일
	통일 노래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3〉 통일 노래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 통일 노래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순서 정하기</li> <li>- 정해진 발표 방법에 따라 발표하기</li> </ul> </li> <li>• 통일 노래 가사 바꾸기 우수 모둠 선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한 이유 발표하기</li> </ul> </li> <li>• 우수 모듬의 통일 노래 함께 부르기</li> </ul> </li> </ul>		
탐구 활동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발표하기</li> <li>•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점 발표하기</li> </ul> </li> </ul>	3	◆ PPT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li> </ul> </li> </ul>		


평가 관점	◦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알고, 그 특징이 드러나게 노래로 부르는가?
평가 내용	상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과 통일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노래를 부른다.
	중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래를 부른다.
	하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래를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평가 시기	◦ 수업 중
평가 방법	◦ 관찰 평가, 상호평가

### 3.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전개

#### 365일 통일교육 전개

스스로 학습하는 **끌림통일학습장**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0년 4,5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끌림통일학습장**을 보강하여 2011년에는 3~6학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 이를 아침활동 및 주말 과제로 제시하고 활동 결과는 단계별 통일장제 운영과 연계하고 있다



 끌림통일학습장(예시)

**통일장제**는 학생들이 생활 주변과 학습의 장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길러주기 위하여 단계별로 통일 활동에 대한 급수를 정하고 일정한 급수에 도달한 학생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통일장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통일장제 심사 관점」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연 2회 통일장제 주간을 통해 심사할 계획이다.

#### 통일장제 운영의 단계

급수	명칭	교육 내용	인증 및 명패	평가물
3급	한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라 사랑하는 마음</li> <li>통일의 필요성</li> </ul>	한라장 명패	끌림통일학습장 및 각종 행사 실적
2급	백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li> <li>평화통일 의지</li> </ul>	백두장 명패	끌림통일학습장 및 각종 행사 실적
1급	통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출물 발표</li> <li>통일노력의 구체적인 실천</li> </ul>	통일장 명패	통일 산출물 및 발표

통일2011-

# 인 증 서

1학년 1반

○ ○ ○

위 어린이는 통일장제 한라장을 통과 하였으므로 이를 칭찬하여 본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2011년 월 일  
서귀중앙초등학교장 송철수



통일장제 인증서 및 명패

통일염원 건강달리기는 개인의 건강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귀포에서 백두산까지 달리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통일염원 건강달리기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 및 비만 학생의 체질 개선 뿐만 아니라 서귀포에서 백두산까지 주요 지역의 지리 및 지명을 익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코스	서귀포→제주시
2코스	제주시→광주광역시
3코스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
4코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5코스	울산광역시→경주
6코스	경주→대전광역시
7코스	대전광역시→청주
8코스	청주→천안
9코스	천안→수원
10코스	수원→인천광역시
11코스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건강달리기 장소는 우리 학교 운동장으로 한정하며 운동장 한 바퀴를 200m로 계산한다. 20개 주요 도시에 도착하면 구간 완주증(3km, 운동장 15바퀴), 백두산까지 완주한 학생(60km, 운동장 300바퀴)에게는 완주증을 수여한다. 단 하루에 5바퀴(1km) 이상을 달릴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

12코스	서울특별시→판문점
13코스	판문점→해주
14코스	해주→평양
15코스	평양→원산
16코스	원산→함흥
17코스	함흥→신의주
18코스	신의주→청진
19코스	청진→압록강
20코스	압록강→백두산

- 통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라 -  
**통일염원 건강달리기 구간 완주증**

학 반 : (    )학년 (    )반  
 이 름 : (                    )  
 출발지 : (                    )  
 도착지 : (                    )

위 학생은 통일염원 건강달리기에서 (            )까지 완주 하였으므로 이 구간 완주증을 드립니다.

2011년    월    일  
 (    )학년 (    )반 담임 (            ) (인)

**※ 완주구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인터넷 등을 활용)**

## 📖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전개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통일 한마당 운동회에 참여하는 전교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 체험 활동 부스 운영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를 고취해 나가고 있다



✍️ 통일 한마당 행사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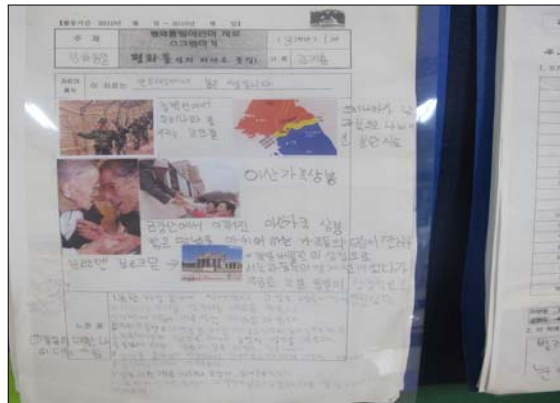
지난 2010년에는 북한영화 상영, 통일 한마당 행사 쓰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토순례의 세 가지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북한 어린이 돕기 모다들엉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토순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통일 관련 자료를 스크랩하거나 가족 통일 신문 제작으로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가족 간에 공유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통일 가족 스크랩

## 통일 체험활동 전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통일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을 교내 행사 및 교외 체험활동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통일 체험활동 실시 현황(2010년도)

행 사 명	내 용 및 방 법	시 기	대 상
◦ 새터민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새터민청소년들의 디딤돌학교인 한겨레중학교 학생 초청 ◦ 또래상호이해통일교육 실시	2010. 5.	4~6학년
◦ 통일소망 6학년 수학여행	◦ 도내 통일 관련 역사적인 장소 견학	2010. 5.	6학년
◦ 통일소망 아영 수련	◦ 다양한 통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0. 5.	5학년
◦ 평화통일어린이 재주자랑대회	◦ 학년별로 종목을 선정하여 통일재주자랑대회 실시	2010. 5. 2010. 10.	전교생
◦ 통일염원의 주간 실시	◦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함양을 위하여 통일염원의 주간을 지정 운영	2010. 6.	전교생
◦ 찾아가는 통일교육	◦ 통일교육원 강사 초청 통일교육 실시	2010. 6.	4학년
◦ 통일안보 초청 강연	◦ 6·25 참전용사 초청 강연회	2010. 6.	5학년
◦ 통일 노가바 부르기 대회	◦ 통일 관련 동요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2010. 7.	3~5학년
◦ 통일도서 독후감쓰기대회	◦ 통일 독후감쓰기(방학과제) ◦ 통일 독후감쓰기대회	2010. 8. 2010. 10.	3~6학년
◦ 평화통일 사진전 관람	◦ 통일부주관 평화통일사진전 관람	2010. 8.	6학년
◦ 자유 탐구 보고서 쓰기	◦ 체험학습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 탐색, 탐구 보고서 작성	2010 여름방학 과제	5~6학년
◦ 통일 퀴즈, 도전! 통일벨	◦ 통일 퀴즈대회	2010. 10.	전교생
◦ 느영나영 덩실덩실 통일 한마당축제	◦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는 활동 실시	2010. 10.	전교생
◦ 서귀중앙 끌림한마음축제	◦ 통일교육 관련 작품 전시 ◦ 끌림통일 학예회 개최	2010. 12.	전교생



#### 4. 통일 체험활동 자료 모음

---

 통일 OX 퀴즈(운동회 프로그램으로 활용)

---

(1)	북한에도 애국가가 있다?	1) 있다.      2) 없다.
	북한 헌법 제170조에는 북한의 '국가'로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의 <애국가>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 <애국가>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대내행 사시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우선적으로 불리고 있다.	
(2)	북한에도 국화가 있다?	1) 있다.      2) 없다.
	북한의 국화는 함박꽃이다.	
(3)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다?	1) 있다.      2) 없다.
	북한에도 지하철은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울보다 1년 가량 더 일찍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지하철은 수도인 평양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4)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다?	1) 있다.      2) 없다.
	북한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다. '국제아동절'이라고 불리며, 이날엔 각종 체육경기와 예술 공연, 운동회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사탕·과자 등 특별배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5)	북한에도 어버이날이 있다?	1) 있다.      2) 없다.
	북한에는 어버이날이 없다.	
(6)	북한에도 유치원이 있다?	1) 있다.      2) 없다.
	북한의 어린이는 만 4세가 되면 유치원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 생활을 시작한다.	

(7)	북한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1) <u>배운다.</u> 2) 배우지 않는다.
	북한에서 제 1외국어는 영어이다.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제 1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8)	북한에도 복권이 있다?	1) <u>있다.</u> 2) 없다.
	남한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북한에도 복권이 있다. 체육대회 때 발행하는 일종의 '체육복권'과 지역 단위로 매달 한 차례 발행하는 복권이 있다. '체육복권'은 국가적인 체육행사나 외국 축구단을 초청해 경기할 때 발행하며 추첨은 경기가 끝난 뒤에 한다. 대개 1등은 컬러 TV를, 2등은 냉장고, 3등은 자전거를 받는다.	

(9)	북한에도 PC방이 있다?	1) <u>있다.</u> 2) 없다.
	있다. 인터넷도 되고 속도도 제법 빠른 편이다. 하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거의 쓰지 못하고 주로 외국인들이 사용한다. 요금은 1시간에 10달러, 즉 우리돈으로 10,000원이 넘는다.	

(10)	북한에도 가요(댄스, 랩)가 있다?	1) <u>있다.</u> 2) <u>없다.</u>
	북한에는 가요가 없다.	

### 1. 백마고지의 영웅 강승우소위상

6.25당시 백마고지전투에서 육탄으로 혈로를 뚫고 부하2명과 함께 장렬히 산화한 제주출신 고 강승우 소위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 2. 충혼탑(대정읍)

6.25전쟁 당시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다 숨겨간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대정읍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립하였다.

### 3. 국제평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그간 “삼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책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 랜드마크 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는 평화에 대한 홍보 및 전시교육, 체험학습의 장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구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 시설 안내

- 상징전시실: 세계평화의 섬 상징홀
- 세계평화의 지수: 평화지수 모니터, 생각의 계단
- 제 1전시실: 제주평화 정신의 배경, 삼무정신, 동북아 중심적 위치, 국제자유도시 추진 제주의 문화유산 제주를 방문했던 정상들의 방문기록
- 제 2전시실: 세계평화지수, 제주의 평화실천사업, 남·북 교류협력, 한·일 월드컵, 감귤보내기 사업, 제주의 평화실천 사업(평화포럼, 국제회의 개최 기념)
- 제 3전시실: 31분의 극사실 인물 모형 전시<밀랍인형 전시관>



# 초등학교 통일의식 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황 은 실  
도남초 교사





# 초등학교 통일의식 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황 은 실 (도남초 교사)

- I. 학교통일교육 방향 모색
- II. 제주도 초등학생 및 교사의 통일의식 분석
- III.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향
- IV. 공론화를 통한 통일교육

## I. 학교통일교육 방향 모색

### 1.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하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 '적'으로 각인되고 있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통일을 어떻게 가르쳐야할 것인지 걱정스러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됨.
-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식량난이 가중되고 강압통치가 강화되는 상황 이런 진단이 통일 원칙을 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통일의 원칙은 변함없어야 함, 남북관계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인 통일 상태로 성숙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하여 본인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통일은 어른들의 몫, 통일이 안 되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등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만연되어 있음
- 이것은 비단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부 교사들도 통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음.
- 학생들은 얼마든지 학교와 교사들의 지도 여하에 따라서 사고와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2. 학교통일교육 방향 모색

- 초등학생들의 통일문제의 관심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안 모색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임(이미경, 2010)
- 통상 교육을 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는 바로 교육대상임
- 교육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지의 여부는 교육대상의 특성 관심, 주제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청소년(만 9세~24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여러 기관에서 실시를 해왔으나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초, 중, 대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이라 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름.
- 제주도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을 조사한 연구 사례가 최근에는 없는 편임.

- 따라서 본 발표는 통일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 관심 제고와 올바른 통일외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일 외식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음.
- 통일환경이 어려워수록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튼튼한 안보관, 객관적인 북한관,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확고하게 심어 주어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함
- 이런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바로 일선학교와 교사들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것임.

### 3.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 통일외식 조사의 의의

- 본 발표에서는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범주를 제주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설문의 범위를 한정하여 비교적 지역별로 규모가 큰 학교를 1개교씩 표집하여 실시하였음.
- 제주도 감지구에 1개교(도남교), 제주도 을지구 1개교(한림교), 서귀포시 1개교(동홍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1개교(서귀중앙교)에 재학하는 6학년 각 2개반의 학생을 표집하여 통일교육 의식에 대하여 분석함.
- 또한 4개 학교의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안보관 천안함 사태 1주년 계기교육 실태, 통일교육 콘텐츠 자료 활용 정도를 파악함
- 통일외식이란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affect), 인식, 혹은 인지구조(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를 포괄함(박명규 외 2009)



- 따라서 통일의식 조사는 일반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안보의식, 통일 필요성 인식, 통일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알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조사함
- 설문 내용은 학생용인 경우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3문항), 안보의식(3문항), 통일 필요성 인식(5문항), 통일교육 방법(4문항)에 대하여 실시하여 남북한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심층적 의식과 가치, 정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확인하여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었음
- 교사용인 경우 안보교육(3문항), 계기교육 (2문항), 교육방법 및 통일교육 콘텐츠 (5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
- 교사들에게 현 상황에서 바라보는 안보교육의 시각과 계기교육 실시 방법을 알아보고, 통일교육원에서 개발된 통일교육 콘텐츠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평가 환류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함

## II. 제주도 초등학생 및 교사의 통일의식 분석

- 최근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인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사의 통일의식을 분석함.

### 1. 학생 통일의식

#### 가.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북한은 믿을만한 국가 인지에 대해서 아니다(62.8%), 잘 모르겠다(27.9%), 그렇다(9.3%)라고 응답

○ 이밖에도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국가(51.2%), 협력국가(30.2%), 다른 나라(18.6%)로 각각 인식하고 있음.

○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쟁(41.3%), 핵무기(26.7%), 굶주림(17.4%), 기타/김정일(8.2%), 한민족(4.1%, )북한동포(4.1%)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북한에 대해 믿지 못할 나라 적대국가, 전쟁, 핵무기 등으로 연상시키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지배적임을 보여줌.

○ 그러나 통일교육시범학교인 경우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국가(44.6%), 협력국가(41.1%), 다른 나라(14.3%)로 각각 인식하고 있어 통일교육의 효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 같은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 우리 교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은 북한은 현실적으로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대화와 상생의 모색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안보 의식 및 북한관

○ 6.25 전쟁 발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어린이는 61.6%이며,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서는 북한(83.1%), 러시아(7.6%), 중국(4.7%), 미국(2.9%), 한국(1.7%)으로 인지하고 있음.

- 6.25전쟁 시기와 전쟁을 일으킨 주범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 오류를 시정해 주고 더 나아가서 남북 분단의 배경도 지도해야 함

- 한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동포를 보는 시각은 적군으로 생각(81.4%), 우리 민족으로 생각(18.6%)한다 라고 응답
-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북한 동포를 적으로 오인하는 왜곡된 북한관이 통일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북한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함

#### 다. 통일 필요성 인식

-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은 생각 본 적이 있다(64.5%), 생각해 본 적이 없다(35.5%)였으며,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27.9%), 경쟁력 강화 및 선진국 진입(25.6%), 전쟁 위협이 적어짐(23.3%), 같은 민족이므로(18.0%)순으로 나타남.
- 이는 학생들이 평소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계기는 있으나통일의 필요성이 종전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한민족, 한국가의 논리는 다문화, 다원화사회에서 당위성의 논리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할 근거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경쟁력 강화 및 선진국 진입 및 전쟁 위협이 적어진다는 매우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점이 주목됨
- 한편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47.1%),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한다(19.2%), 현재가 편안하다(13.4%), 북한을 혐오한다(12.8%), 기타(7.5%) 순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사실은 학생들이 국가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당장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세가 만연함.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자세가 갖춰질 때 결국 민족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0년 이후(24.4%), 5-10년 이내(21.5%), 이루어지지 않는다(20.3%), 10-20년 이내(19.3%), 5년 이내(14.5%)로 반응을 보임.
-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79.7%의 학생이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점은 통일교육시범학교에서는 5-10년 이내(32.1%), 10-20년 이내(21.4%), 20년 이후(17.9%), 5년 이내(16.1%), 이루어지지 않는다(12.5%)로 반응을 보임. 이 같은 사실은 북한 이해 및 통일대비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87.5%)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통일방식은 평화통일(77.3%),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12.2%), 아무런 방식도 상관 없다(10.5%)로 응답함.
- 현재에 안주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막연하나마 통일에 대한 환상, 기대도 표출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게 통일한국에서 살아가게 될 자신의 미래의 삶의 모습이나 꿈, 희망, 진로를 설계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에 맞는 활동을 시도해 볼 만함.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통일비전을 스스로 디자인할 때 통일전망은 밝음.

#### 라. 통일교육 실시 방법

- 통일 및 북한 정보를 얻는 매체는 TV, 신문, 라디오(58.7%), 인터넷(25.6%), 학교수업과 교과서(9.9%) 순으로 나타남.
- 학생들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의 대부분의 정보를 TV, 신문, 라디오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체는 언론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사실은 향후 통일교육의 주요 통로로서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그러나 통일교육시범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수업과 교과서(37.5%), 인터넷(30.4%), TV, 신문, 라디오(25.07%),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7.1%) 순으로 나타나 의도적, 계획적인 통일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줌.
- 바람직한 통일교육 실시 방법 매체는 동영상자료 시청(36.0%), 만화(23.8%), 인터넷 활용(20.2%), 강의(13.4%) 순으로 나타남.
- 통일교육 실시 방법은 영상세대를 반영하듯이 동영상자료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학생 눈높이에 맞춘 IPTV 콘텐츠 활용수업 시도가 적절함.
- 통일교육 IPTV 콘텐츠 활용수업 경험은 있다(37.8%), 없다(62.2%), 통일교육 IPTV 콘텐츠 활용수업 선호도는 그저 그렇다(44.2%), 조금 도움이 된다(2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5.6%), 매우 도움이 된다(9.3%)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통일교육 활용 수업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아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

## 2. 교사들의 통일의식

-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튼튼한 안보관 객관적인 북한관,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확고하게 심어주어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일선 교사들에 대한 통일의식을 제고토록 해야 하며 교사들의 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 안보관

-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그렇다(77.7%), 아니다(22.3%),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 발생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통일교육 비중에

대해서는 통일대비교육(38.1%), 올바른 북한관(35.3%), 안보교육(26.6%)으로 나타남.

- 반면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불안하다(46.8%), 약간 불안하다(43.2%), 매우 불안하다(7.2%), 안정적이다(2.8%)순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사실은 교사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언론과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교사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대북관 안보관 통일대비교육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나. 천안함 사태 1주년 계기교육

- 계기교육은 실시하였다(56.8%), 실시하지 않았다(43.2%)로 나타남.

- 계기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계기교육 필요성 인식은 하나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음

- 계기교육 실시 방법은 훈화(76.1), 동영상 자료 시청(20.5%)으로 나타남.

-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체인 동영상 자료와는 배치됨(천안함 동영상은 4월에야 보급됨) 이는 수요자가 요구를 해도 제반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통일교육 실시 방법은 기존의 강의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동영상 제작이 늦게 보급되어 활용할 자료가 없는 실정이었음 반면 연평도 포격 도발 동영상은 아이스크림에 있었음, 문제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다. 통일교육 IPTV 콘텐츠 활용

- 통일교육 IPTV 콘텐츠가 개발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58.9%), 모르고 있다(41.1%)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교육 IPTV 콘텐츠를 인지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활용 여부는 있다(57.3%), 없다(42.7%)로 나타남.
  - 통일교육 IPTV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뒤따라야 하겠음
-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통일교육 IPTV 콘텐츠를 활용하지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도가 맞지 않아서(40%),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34.3%), 교육과정 내용과 맞지 않아서(14.3%), 있는 사실을 몰라서(11.4%)로 나타남.
  - 진도가 맞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았다는 교사와 다른 자료를 활용했다는 교사를 위해서 통일교육 IPTV 콘텐츠 안내서나 장점 등을 부각시킨 홍보자료 안내가 필요함.
-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육사이트는 '초등 아이스크림'(97.9%)이 압도적임, 또한 '초등 아이스크림'에 통일교육 콘텐츠 내용이 별도의 배너가 아닌 도덕과 차시 내에 수업진행자료 및 수업보탬자료에 추가되어 구성된다면 활용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경우에 따라 활용하겠다(73.4%), 적극 활용하겠다(24.5%), 활용하지 않겠다(2.1%)로 나타남.
  - 이는 통일교육 IPTV 콘텐츠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로 교사들은 각종 업무와 공문 보고로 실지로 충분한 교재연구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함
  - 창의적체험활동 콘텐츠는 기존의 배너를 유지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내에 통일교육 주제와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정규교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등 아이스크림' 도덕 교과 해당 차시 내에 수업진행자료 및 수업보탬자료에 추가되어 구성된다면 활용가치가 더 크리라고 봄.

- 교육과정을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자료는 교사들의 관심에서 멀어짐
- 2009학년도에 5-6학년인 경우에는 2007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통일 교육 IPTV 콘텐츠의 내용은 제7차교육과정의 단원명과 차시가 명시됨. 교과서 내용과 자료의 콘텐츠 단원명이 다를 경우에 과거의 자료로 인식돼 아무리 좋은 동영상 자료라 할지라도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큼
- 내용 검토를 해 보면 2007개정교육과정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으므로 교육 과정과 일치되게 단원명, 차시, 교과서의 페이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

### Ⅲ.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방향

#### 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통일교육이 중요

- 1년에 몇 시간은 반드시 전체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정시수가 도입돼야 함.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학교가 없기 때문임.
- 현재 ICT 활용교육 34시간 및 보건교육 17시간 확보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철칙처럼 학교교육과정 편성시 지켜지고 있음, 덕분에 IT 강국이라는 명성은 얻고 있음.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통일대비교육, 안보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5시간에 불과하나 그것도 규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어서 대부분의 교과시간 자체로 대치될 뿐 따로 교과시간을 증배하거나 창의적재량활동시간을 추가로 편성하는 학교는 거의 없음.



- 제반 시책교육과 맞물려 통일교육이 설 자리가 좁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2011 제주시교육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범교과 학습 및 계기교육 지침(전통예절과 민주시민교육, 김만덕의 배려교육, 봉사 활동, 안전교육, 독도교육, 한자교육, 4,3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청렴교육 등 35개 요소, 한국문화사교육, 녹색교육 등)
  - 제주시교육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반드시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야 함
  
- 서울시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 5학년 '통일' 지도시간 확보가 관건
  - 초등 통일 안보 교재가 4월에 보급이 되었으나 지도할 시수 확보가 문제임
  - 현재 1-2학년 바른생활은 통일 단원이 4차시, 3-6학년은 3차시에 불과함.
  - 통일 교재는 34차시 분량임, 선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도덕 교과를 통일 교과로 대신 가르쳐야 가능한 시간 편성임.
  - 5학년은 현재 2007 개정교육과정 적용 대상 학년이지만 인정도서인 '통일' 교재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정신을 담고 있으며 2011. 1. 25 수정 보완하였으나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교재 지도 내용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남북 상호이해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도시간 확보만 된다면 효율적이겠음.
  -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어 더불어 살 때에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통일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촉진제가 될 것임(조정기, 2011)

## 2.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

- 초등학생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에서 북한에 대해 믿지 못할 나라 적대국가, 전쟁, 핵무기 등으로 연상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함.
- 북한 실상을 알아야 통일교육을 할 때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음. 북한 영화와 자유 강연을 지속적으로 해 선생님들이 북한 실상을 제일 먼저 알게 하도록 해야 함
- 계기교육에 따른 동영상 제작이 필요함.
- 교사 설문 조사 결과 계기교육 실시 방법은 훈화(76.1), 동영상 자료 시청(20.5%)로 나타남.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수매체는 동영상자료(36.0%), 만화(23.8%), 인터넷 활용(20.2%), 강의(13.4%) 순으로 나타나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상반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흥미도 및 동기유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천안함 1주기 계기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자료의 부재 계기교육 지침 공문 하달시에는 계기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장 결재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공인된 동영상 자료 보급으로 적극적인 계기교육 실시 유도가 필요함
- 반면 4. 20. 장애인의 날에 실시된 장애이해교육을 위해서 KBS,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기획하고 사랑의 열매가 후원한 교육방송 대한민국 1교시 '학교 가는 길'을 전 학교에서 시청 안내를 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짐.

## 3. 안보교육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통일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 등을 일으킴 북한이 이처럼 폭력 무력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함 이런 점에서 안보는 평화통일을 향한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함. 통일 논의의 첫 시작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임.
- 안보교육이란 단지 북한을 규탄하고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합의를 형성하는 일임.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체제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임(김광동, 2011)
- 국제보편가치와 세계 문명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도전하는 일임 그렇기에 안보는 정부가 하는 것이거나 총을 든 군인만이 하는 것은 아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합의형성 과정이기 때문임. 나아가 우리가 만든 공동체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 국민단합과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안보교육임(김광동, 2011)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육시켜야 함

#### 4.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통일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올바른 북한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보는 이원적 시각이 필요함.
-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적화통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임 그러나 북한주민은 김정일 정권의 학정으로 인해 억압 받고 굶주리는 우리

의 형제이며 우리가 도와주고 해방시켜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됨(송영대, 2011)

##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대비교육 필요

- 통일대비교육은 이질화된 북한의 사회문화의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통일과정, 통일 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할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함.
- 특히 예기치 않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냉철히 대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여 21세기를 주도하고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점과 의지를 심어주는 통일대비교육이 필요함

## 6. 통일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공유

### ○ 통일의 필요성 논리 확대

- 학생들이 갖고 있는 통일 의식은 대체로 무관심(64.5%),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47.1%),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한다(19.2%), 현재가 편안하다(13.4%)로 분단 현상 유지 등 좌편향적 성향 등 부정적 요인을 많이 갖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 주는 동기유발 즉,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통일 문제가 개개인의 실질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우수한 기술 자본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결합되게 됨으로써 통일 한국의 경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 통일한국 경제는 통일 후 30년 내 독일,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009.02.21. 골드만삭스 보고)

-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적고 통일비용 보다 통일이득이 큼
- 통일을 향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개인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은 물론 사회, 문화에서도 많은 편익을 제공 받게 됨(홍재형, 2010)을 강조
-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특별기획 프로그램(통일 리포터! 통일 독일을 가다)을 통한 독일 통일 21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현재 모습을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함

## 7.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통일교육'

- 학습자 밀착형 통일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함.
- 대상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토론, 발표 활동 등을 통한 체험 중심의 학습으로 이뤄져야 함 특히 통일교육은 수준별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따로 적용해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별 교육자료들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확대와 흥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휴전선 방문 등 현장체험으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야 함
-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상 분단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임 원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서 분단현장 견학 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구안 필요
- 북한이탈학생 및 주민과의 직접적 접촉이 쉽지 않은 점도 애로사항임 학교에 다문화 학생은 있지만 북한이탈학생은 없는 실정임 통일체험활동을 설계하고 전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 활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8. 통일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필요

- 관리자 중심의 통일교육 연찬회 새로운 시도  
지난 4월 15일(금)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관리자 중심의 통일교육 연찬회 개최
-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조체제 및 네트워크 활성화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함
- 교사가 먼저 배워야 효율적인 교육 가능
- 통일교육 IPTV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발표대회 및 공개수업 추진 및 수업지도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함.
- 교사들이 수업자료 준비를 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시간 부족 등
-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 기회 부족  
통일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기 중 실시로 인해 학급담임교사가 참여하기에는 대체 강사 임용 등 수업부담이 크므로 방학 중 연수 개설 필요
- 통일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통일교육 장학자료 발간(통일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 영재학급(수학, 과학, 발명), 특수학급 지도교사는 승진에 필요한 선택가산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영어지도교사에 대한 6개월 장기 해외연수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비하면 통일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한 상태라 교사들이 영재학급, 특수학급, 영어담당지도에 유인체제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 현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매진할 교사는 거의 없는 편임.

## 9. 지역 축제와 연계한 재미있고 신명나는 '통일문화축제 활성화'

- 지역축제인 탐라문화제(2012년 '대탐라전' 명칭 변경)와 연계한 통일문화축제 운영이 장기적인 과제로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문화제를 대탐라전으로 확대 발전시켜 탐라의 정신과 가치를 거양하는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여 도민 관광객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탐라문화제와 통일문화축전 병행 운영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필요 과학축전처럼 6, 15 공동선언 일이나 6·25 전쟁 계기교육 차원에서 단독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적극 동참 유도를 하여 한 걸음 더 일반인들에게 통일이라는 버거운 주제가 친숙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은 청소년, 기성세대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게 즐겁고 재미 있게 구성돼야 하며, 특히 통일 문제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행사로 기획되어야 함.
- 통일문화축제는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도덕교과연구협의회, 민주시민교과연구협의회 등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통일 네트워크를 형성한 연계 운영이 필요함.
- 제주대학교사범대학생 및 제주교육대학생의 인력 활용 필요, 교육봉사 활동 시간(20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는 교육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및 현장 경험 축적의 기회가 됨.
- 통일교육이 학교가 아닌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임.  
통일교육은 왜 즐겁고 신나면 안되는가? 더 이상 학교 안에서의 통일교육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님.

-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일선학교, 학계, 언론 등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예산 지원 및 해당 교육청, 지역통일교육 센터, 교과연구협의회와 협의하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언론 등에서는 행사 홍보 및 후원하는 협조체제를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10.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에 따른 활용 가치 높이기

-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통일부에서 제작 전국 초중고에 보급되는 IPTV 뿐만 아니라 WEB 등 다양한 서버를 통해 보급, 활용도를 제고하는 시도를 현재 하고 있음
- 수업에 적용해 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필요함.
-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 현장 포럼과 통일교육 컨설턴트 과정 개설이 필요함.
- 창의적인 통일 교수법을 가진 우수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 시키는 공개의 장이 필요함.
- 통일교육 콘텐츠도 또 하나의 교과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이란 키워드가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게 아쉬움,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 크고 작은 인터넷 매체들, 블로그, 게시판 등, 비주류적인 뉴스들을 주요 소재로 삼을 수는 없는가? 중요한 건 뉴스나 기사 자체를 아이템으로 삼기 보다는, 그 중에 통일이란 아이템으로 발전시킬만한 키워드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함.



- 통일이란 소재에 대해 추가로 자료 조사를 하다보면 뉴스 기사 자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음.

예) 연예인 MC몽의 병역기피는 분단국가여서 용납이 어려움, 병역 기피를 한 그 누구도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학생들의 관심을 보이는 연예인을 소재로 안보교육을 하는 것도 본 발표자의 경험에 의하면 학생 눈높이에 맞고 관심을 보임

## 11. 교육방송 지식 채널- e 제작기법 참고

- 교육방송 지식채널 e는 교사들의 동기유발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
- 궁금증을 유발하는 도입부, 반전이 있는 미국 드라마식 후반부,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엔딩이 동기유발에 주효하며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끝기에 충분한 방송이 끝난 뒤에도 다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동영상 제작 기법이 우수하여 수업 활용 가치가 높음.
- 지식채널 - e가 신선했던 건, 지식을 다루는 방식임.
- 여기서 우리가 응용할 만한 것은 통일을 다루는 방식, 접근 방식임. 기존 교과서나 동영상이 다분히 계몽적이고 일방향적 차원의 정보 전달이었다면 지식채널-e는 시청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달음을 통한 감동을 얻도록 하는 데 주력함.
- 어떤 관점이나 지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통일이란 화두를 던지고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둔 채 쪽 빠져 나오는 것임, 그러면서 아! 통일이 머지 않았구나, 통일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임.

- 통일교육 정규교과 콘텐츠 제작기법에서도 과거의 영화상영 전의 대한뉴스 같은 성격의 일률적인 도입부에서 좀 더 새로운 시도, 신선한 감각이 요구됨. 좀 더 실험정신이 강한 기획이 요구됨, 단 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한 편을 보더라도 여운이 남는 드라마틱한 전개 기법이 절실함.

○ 새터민들을 소재로 통일을 접근시켜 나가는 방법 도입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외와 관련지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왕따의 경우처럼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는 사람보다 많은 게 일반적인데 새터민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는 수가 너무 많음, 인성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목 필요

#### IV. 공론화를 통한 통일교육 방향

○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북한관, 통일관을 제대로 심어주어야 함

- 올해는 분단 6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독일 통일 21년이 되는 해임.
-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통일한국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북한관, 통일관을 제대로 심어주어야 할 것임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소명임

○ 통일은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교사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분단과 통일이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 통일 준비는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투자
  - 통일 준비가 전혀 없었을 때 갖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통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전환될 것임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오는 것만은 아님 통일의 기회는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없다면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
  - 금년은 독일 통일 21주년임. 통독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통일효과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 이득이 더 큼을 알 수 있음. 독일은 현재 EU의 중추국가이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대국임.
  - 통일은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되지만 새로운 편익을 창출하며 통일 편익은 통일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큼, 왜냐하면 통일 비용은 유한한 반면 통일비용은 무한하기 때문임(조동호, 2011)
-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주는 통일 교육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통일은 더 이상 관념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 문제가 아닌 현실적 과제임. 학생들이 올바른 통일관과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 주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
- 통일교육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뜨려야 함.
 

통일교육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뜨려야 함. 왜 통일교육을 교육적으로 하면 재미 있기가 어려운가? 좀 더 새롭게 시도되는 재미있는 통일교육, 신명나는 통일교육, 축제 속에서 배우는 통일교육이 시도되어야 함. 제주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통일교육, 가족과 함께 스스로 참여하게 만드는 통일교육, 기다려 지는 통일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임.

-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성공의 열쇠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3P가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가르치는 교사(person)가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되고 교육의 과정(process)이 변화될 때 새로운 인재들이 배출(products)될 것임(김영길, 2011) 곧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통일교육 성공의 열쇠임.
- 공론화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방향 제시  
오늘의 통일교육 대토론회에서 공론화 활동을 통해 가라앉아있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해결책 만들어나가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방향 명확해질 것.
- ‘한 아이 키우기에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끌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임.
- 통일은 이미 큰 틀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음. 다만 언제 어떻게 완성되느냐의 문제일 뿐임. 따라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함.

## 참고문헌

- 고경민(2010), 「새로운 학교통일 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010 제주지역 학교 통일 대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통일교육의 논리:왜 통일이 필요한가?』,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 고성준, 변종현, 고경민, 양영길, 김병성(2010),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제주대학교
- 김광동(2011), 「안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통일신문, 2011년 4월 4일 4면
- 김영길(2011) 「꿈나래 21」 2011년 4월호, 『미래를 여는 두 개의 열쇠, 창의·인성』, 교육과학기술부

- 박명규 외(2009), 「2009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서재진(2010), 「새로운 학교통일 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010 제주지역 학교 통일 대토론회 자료집 『통일 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 송영대(2011), 「전도 초·중등 교장, 교감 초청 통일안보교육 연찬회 자료집」 『최근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 관계 그리고 통일교육』, 제주지역 통일교육센터
- 이미경(2010),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통일부 통일교육원
- 이미경(2011), 「제1기 초등 교장(감)반 통일교육 연수자료」,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 조동호(2011),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 홍재형(2011), 「통일교육, 통일의 꿈을 현실로」, 통일신문, 2011년 10월 11일 1면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학교통일교육

김 병 성  
서귀포여중 교사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학교통일교육

김 병 성 (서귀포여중 교사)

- I. 통일시대를 맞으며
- II.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 III.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 I. 통일시대를 맞으며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1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독일통일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의 통일과 통일된 독일의 현재 모습은 분단된 그러면서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줄곧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통일이 관념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임을 인식시켜 줌은 물론, 통일이 되었을 때 더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초기에는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 심리적 통합 실패, 사회적 혼란이 부각되었으나, 이제는 동독 지역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통일독일의 경제적 부흥, 국가브랜드의 가치 상승, 유럽통합과 안보환경의 개선 등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고<sup>2)</sup>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sup>3)</sup>

1) 한반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분단되고 1950년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로 한반도 안에서는 다방면에서 통일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사람들 모두 분단 이후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의 소원(작사 안석영, 작곡 안병원)이라는 노래에서 '독립'을 '통일'이라고 고쳐 부르며 독립을 이루듯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고 있다. 또한, 방법의 차이일 뿐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대남전략도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즉,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은 여전히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즉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 반면 우리는 처음에는 북한과 경쟁적으로 공격적인 통일 방안을 지향했지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제 분단관리를 넘어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pp. 117-152, 2010.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통일 독일의 긍정적인 측면이 확산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여건들로 인하여 통일교육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일의식도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1994년에 8.4%에서 2007년에는 15.1%로 증가하였다.<sup>4)</sup> 아울러 통일교육협의회가 2009년 11월13일부터 12월4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 없다'는 응답이 29.7%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이는 예년에 비해 5~10% 정도 낮은 수치이지만, 아직도 30%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점검과 반성을 촉구하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학교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은 우리의 통일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철저한 문제 인식의 토대 위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이 처한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학교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서재진, "통일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2010.9.17.), pp. 2-5.

3) 고경민,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대비 통일교육: 통일독일의 통일편익이 주는 함의", 제주지역 평화포럼자료집(2010.10.14.), 2010.

4) 차우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재인용.

5) 통일신문, 2010. 2. 10. 이 조사는 (주)리서치 앤 리서치가 우편설문을 이용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2.98\%$ P다. 이하 통일교육협의회 자료는 이를 인용하였다.

## II.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 1. 교육과정으로 본 학교통일교육의 위상

아직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마지못해 실행해야 할 하나의 교육 시책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분단국가의 지상 목표가 통일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아울러 통일을 관념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보고 있다면 학교 교육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지만, 학교통일교육은 아직까지 그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현재 각급학교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의 편성 시간 및 교육 시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은 대부분 학교 교과수업을 통해 통일 및 북한관련 내용을 교육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전 교과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 등 특정교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통일교육 시간도 연 평균 약 6.5시간이다. 이는 현행 개정 교육과정 이전 통일교육 시간을 연간 초등 10시간, 중등 12시간, 고등 17시간으로 편성한 것에 비해 실제 교육시간이 현격하게 적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편성 시간도 못 미치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 시 생략되거나 대입 수능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교사와 학생 모두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는 감소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sup>6)</sup>

2009년 16개 시·도 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실제통일교육 시간은 초등학교가 학년 당 평균 5.4시간, 중학교는 4.7시간, 고등학교는 5.7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중학교 총 수업시수가 학년별 평균 1,152시간이었음을 감안할 때

6) 오충석,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감코리아(2010. 5. 4.)

0.4%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과 내 통일교육의 시수는 2009년 12월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추진 일환으로 미래형 교과과정이 최종 확정되어 더욱 축소되고 있다.<sup>7)</sup>

초등학교의 경우 통일교육 단원이 2학기 후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년말에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준비가 떨어지고 학생들 역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시수도 학년별 3~4차시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sup>8)</sup>

중학교의 경우 2007년 개정 도덕과 내용 영역에서 보면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라는 영역이 신설되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인 '국가·민족 생활 영역'이 통합되었다.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으로 변경된 것은 그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르칠 영역의 범위가 국가·민족에서 확산되어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통일교육에 대한 영역이 축소된 것이 단적으로 보인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으로, 전체 1/4정도 분량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영역에서는 1/6~1/8 정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 7차와 2007년 개정 전 교육과정을 비교할 때, 도덕과 내용에서 통일교육 내용은 20~30%가 줄어들었다.<sup>9)</sup>

또한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강조되지만 남북한 간의 민족 문제나 이해관계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을 노정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처럼 도덕과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 온 민족적 입장의 통일논의가 표류하면서,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은 전반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축소가 이루어졌다

---

7) 이미경,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8) 한영숙, 김경자,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p. 60.

9) 박찬석, "학교 통일교육을 생각하며", 통일신문, 2010. 7. 19.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기존 고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교과목수를 8과목이하로 축소 편성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존 1학년에 필수 과목이던 '도덕' 교과가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거의 실시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sup>10)</sup>를 보면(현재 금성출판사 외 4종의 검인정교과서 출판) 통일과 관련하여 별도의 단원 배정 없이 '민족과 윤리' 중에 4~7쪽 정도 다를 뿐이다. 그 내용도 통일문제를 민족통합과 한민족공동체의 발전 차원에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다소 감성적이고 정의적 차원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sup>11)</sup>

이러한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축소는 도덕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와 국어과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통일교육을 교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이나 발전방향을 거론할 때면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은 통일교육지침서<sup>12)</sup>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기에 금과옥조처럼 당연히 받아들여 그 내용의 한계에 대한 검토는 간과하고, 방법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었던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sup>13)</sup>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kice.re.kr>) 공지사항 23번 2010년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참조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경우 5권이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다.

11) 김용찬,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p. 106.

12) 통일교육지침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일선 교육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급학교에서는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 내용체계 및 지도방향, 권고사항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p. 2. 일러두기.

먼저,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는, i) 통일 문제의 이해, ii) 북한 이해, iii) 통일 환경의 이해, iv) 통일정책, v) 통일을 위한 과제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14)</sup>

그런데, 통일교육지침서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 해설서임에도 정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sup>15)</sup>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은 평화보다 국가안보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통일교육지침으로 내려져 있다.<sup>16)</sup>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교과 내용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권이 교체되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니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관된 통일교육이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정권 변화 때마다 수시로 통일교육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교육적 공론화 없이 바로 학교통일교육에 반영될 경우에는 교육의 정치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sup>17)</sup>,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하는 통일정책 때문에 일선 통일교육 교사들은 당황과 혼란으로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행태는 교육 현장에서는 수시로 통일교육의

13) 초, 중, 고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상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2010. 9. 17.), 2010. 참조.

14)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p. 23-63.

15) 이 때문에 통일교육지침서의 지침을 과연 교과서의 내용으로 삼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윤세라, “학교통일교육을 넘어선 다양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현황과 발전적 제안-북한연구21 워크숍 자료집, 2009.

16)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 18.

1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일반용) 등의 책자가 발간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적용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통일뉴스, 2010. 5. 10.

18) 통일교육이 다소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교사가 교육과정에 근거해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온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권별로 상이한 척도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통제했고 지나친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 주체들이 북한 이해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기피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우규,

관점과 내용을 달리하여 교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혼선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와, 교육자 스스로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게 된다.<sup>19)</sup>

지금 현재도 남북관계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담당교사들은 자기검열로 수동적이거나 관망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교육이 다소 표류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은 보다 객관적이며,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학생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조건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sup>20)</sup>,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적 모색을 해야 함에도 관점에 따라 크게 달리 인식하고 있다.<sup>21)</sup>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심사에 합격하여 2011년부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도덕 2학년 교과서<sup>22)</sup>의 통일관련 내용을 보면 남북 분단의 배경부터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통일의지와 관련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 둘째, 민족의 동질성 회복, 셋째, 경제적 발전과 번영, 넷째, 평화의 정착, 다섯째,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이외에도 자유, 복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은 2010년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 의해 대부분 추상적이 내용에 불과하다,<sup>23)</sup> 혹은 우리 사회 통일 회의의식 점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19) 고경민, “청소년 통일 논리의 교육: 왜 통일이 필요한가?”,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p.33.

20) 박찬석, “학교 통일교육을 생각하며”, 통일신문, 2010. 7. 19.

21) 양영길, “통일교육의 방법과 실제: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 순회강좌 연찬회 자료집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2011. p. 51.

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kice.re.kr>) 공지사항 23번 2010년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참조 중학교 도덕 2학년 교과서 6권과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5권이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다.

으로 지적되는 것은 통일비용 지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임에도 통일이 가져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통일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통일시나리오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4)</sup>

통일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단일민족의 재결합 논리는 세계 화시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변강대국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경계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논리는 이산가족 1세대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인도적 시혜 논리도 자신의 생계유지조차 힘겨운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그리고 입시문제가 우선인 청소년들에게는 호소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재 차원의 논리는 개개인의 이익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공공재 차원'에서만 역설됨으로써 그 설득력이 크게 반감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통일 필요성 논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강대국들 및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거의 결여하고 있다.<sup>25)</sup>

### 3.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한편,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지 않다. 청소년들의 통일교육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보다는 보통과 불만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민주평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이 30.7%, 불만족이 69.3%로 나타났으며, 2009년 통일교육협의회 조사결과에서는 '만족' 22.3%, '보통' 59.9%, '불만족' 17.8%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현행 교과 내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흥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추상적·거대 담론 위주로 서술된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된 강의식·주입식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3) 김형운, "기존 통일 필요성 논리 내용의 한계", 2010.

24) 이정태, "청소년 통일교육 필요성 논리개발", 2010.

25) 엄상윤, 정책브리핑, "통일 회의(懷疑)의식의 점증: 배경 분석과 해결방안", 2010.

어느 순간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은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있다.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를 습관적으로 되풀이 하여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에 따라 활동의 차이는 있지만 현상유지 경향이나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문제, 수업 방법 등에 대한 통일교육 현장의 합의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인데,<sup>26)</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통일교육 담당교사에게만 맡기거나, 통일교육지침서의 발간 수를 늘리는 것<sup>27)</sup>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시범학교가 아니라면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28)</sup>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기회도 없으며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애써 그렇게 할 의지도 없다 그리고 시범학교에서조차도 운영이 끝나면 한순간 타올랐던 통일교육의 불꽃이 사그라져 버린다.

또한 통일교육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미흡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sup>29)</sup> 현행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 흥미와 공감대가 결여된 교과서 위주로 되어있어 학생들 수준과 관심에 부합되는 보조 자료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초·중·고 수준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더구나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점에 더해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약화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26) 김국현, “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27) 2009년 2만5천부에서 2010년 3만3천부로 늘어났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에 집중해서 배포하고 있다. 통일뉴스, 2010. 5. 10.

28)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비롯한 창의성교육 환경 교육, 성 교육, 독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 경우와 많은 대비가 된다.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이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보는 견해도 있다 차우규, 20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2010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도 외국어교육, 전통문화, 친환경, 녹색성장, 관광교육,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면서도 통일교육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김용찬, 전개논문. p.106.

29) 이미경, 전개논문.



통일교육의 네트워크 및 지원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도 기인한다. 현재 통일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학교통일교육과 통일부가 주관하는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통일교육원 중심의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통일교육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들 각 영역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으로 인한 체계적·효율적 통일교육 실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관련기관과 단체간 유기적 네트워크가 미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학교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연계가 부족한 형편이다

### Ⅲ.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1.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시대상을 반영하므로 다양한 교과목이 신설될 수 있다. 한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통일이후의 완전한 사회 안정기까지 하나의 독립된 '통일'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교과를 담당할 교사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거나<sup>30)</sup> 통일교육 시간 편성을 그 위상에 맞게 확보하고 실제 그 시간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에도 특정 교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 담당교사가 행사를 운영하고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사가 내용을 연구하고 그 교과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통일관련 학습기회의 확대를 위해 국어·역사·지리

---

30) 김용찬, 전개논문. p. 105.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과를 축소하고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 신설은 어렵거나, 신설되더라도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등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참여·체험형 통일교육과 같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 집합 연수가 아니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해당 교과별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 지침이나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장학사 교장·교감 등 학교운영 책임자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 대상의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내에서 통일교육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구 서서울정보고등학교)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통일교육지원법과 그 시행령 이상의 법으로 보호되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아직도 30%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통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현행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흥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추상적·거대 담론 위주로 서술된 교과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추상적이고 거대한 통일담론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실리 위주의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민족공동체나 국가의 번영, 동북아의 평화와 같이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그들에게 통일이 절실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정답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천만 명이나 되는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천만 가지가 될 수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나 사람들을 통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기여하게 만드는 힘은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만 가지 통일의 필요성<sup>1)</sup>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 시기도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기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되어야 한다.

## 2. 내용

기존의 통일 필요성을 설득하는 논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새로운 설득논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곧 통일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 협의회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국력강화(28.4%), 이산가족문제해결(24.7%), 한민족(24.6%), 전쟁위협해소(20.3%)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률도 16.1%나 됐다. 분단비용 경감, 취업기회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를 성인보다 더욱 실질적, 구체적 필요와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결국, 새로운 설득논리 개발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상생·공영'의 차원을 강조하는 기본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방향은 '통일'이라는 공공재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가져다 줄 실질적 이익이 피부로 절감될 수 있는 내용, 북한 정권 혹은 정치세력의 동의도 이끌어 낼 여지가 있는 내용, 주변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내용 '좋은 통일' 및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 비용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은 당위적·인도적 차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분단 체제의 장기화가 빚어낸 남북간 격차 및 이질성의 심화,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 등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

31) 조정아, "천만 가지 통일의 필요성", 공감코리아 2009. 10. 9.

32) 통일신문, 2010. 2. 10.

그러나 통일비용은 남북한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해 필요한 비용과 통일이 가져올 이익(국제 사회에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적 기회의 증대 사회적·심리적 안정 등)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따라서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환기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통일교육은 한반도 통일과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한반도 통일이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이 크게 강조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sup>33)34)</sup>

### 3. 방법

통일교육에 열성적인 교사와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다가갈 것인가 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보다 정교한 설명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관한 지식과 행사 참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2009년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77.8%가 학교통일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고1 학생이 91.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들은 가장 흥미 있는 통일교육으로 시청각(52.4%) 교육을 꼽았다.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 획득 경로는 방송(TV·라디오·신문 32%), 학교수업(26%), 인터넷(23.7%), 교과서·참고서적(7.9%)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주로 언론

33)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p.15-16.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임상윤, 전개 논문.

34)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당위적·인도적 차원이나 실리적 차원이나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나, 담당교사들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연구의 방향에 따라 달리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인은 그동안 간과되어 있는 실리적 차원의 접근도 이제는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체, 학교교육,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경은 “통일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35)</sup>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방식으로 대상별 맞춤방식 흥미유발, 참여위주의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로 통일교육의 범교과화, 교사 및 교육행정 종사자들의 통일 의식 제고 교육 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을 꼽았다 “청소년들의 수준, 관심 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디어세대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 중심으로 강의 중심 교육에서 탈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유형과<sup>36)</sup> 내용에<sup>37)</sup> 따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면서 교실 안팎의 통일교육을 조화시킬 수 있는 PMR<sup>38)</sup> 및 내용 지식 교수법(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같은 교수 학습 기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

35) 통일신문, 2010. 7. 5.

36) 오기성,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통일교육원 연수교재 「통일연구 참고자료」, 2002. p. 135.

37) 각각의 사례는 오기성, 상계 논문, pp. 135-136.

38) Plus Minus Reconstruction의 첫 음을 따서 만든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용어이다. 최적 방안 찾기 수업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1997년 차우규 박사가 중학교 재직 중에 만든 것으로 의사 결정 능력과 창의적 능력 그리고 참여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워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이후 1998년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든 ‘창의성 신장을 돕는 중학교 도덕과 학습 평가 방법 연구’와 2001년의 ‘중학교 통일 교육 교수-학습 방법 연구’ 등에서 일부 소개된 바 있다. 최적 방안 찾기 수업 모형은 “논쟁거리가 되는 도덕 문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게 한 후, 각 입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충분히 찾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난 후 그 방안을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의 일반적 절차는 차우규,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통일교육원 연수교재, 2002 p.131. 참고. 최적 방안 찾기 수업 모형을 통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예로는, 대북 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이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아본 다음, 대북 쌀 지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따져보고 나아가 각 방안의 단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아내어 이를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흥미와 관심을 끌어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적으로 행동하는 놀이와 체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이나 문자로 통일교육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신세대들인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반쪽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학생들에게 친밀하면서도 정교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왜 무관심한지 요인을 찾고 원인에 알맞은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이 재미있지 않기 때문이라면<sup>39)</sup> 재미를 주고,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디지털 미디어에 있고, 감각적 흥미를 추구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감각적 흥미를 줄 수 있는 통일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 교육이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단순한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방법과 수단은 흥미롭지만 그 행위들의 목표는 학생들의 건강한 통일 의식 형성이라는 기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현장체험 교육 활동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sup>40)</sup>, 비디오, 영화, 교육방송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북한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학교통일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 주관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

39)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이 재미없어서(31.4%)”,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37.4%)”를 드는데 비해서, 교사들은 교육 내용의 문제(27.0%)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고등학생은 교육 내용에서 원인을 찾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수업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http://www.acdpu.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서 <주요 업무 활동 → 통일문제여론수렴활동 → 통일문제 여론 조사 → 중·고교생 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 참고.

40) 남북문화통합교육원(<http://www.togetherkorea.org>)의 협조를 통해 전문 강사 및 북한이탈주민 강사를 초청하여 남북한 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있다. 전문 강사 강의, 토론과 발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의 자유 대화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학교통일교육프로그램<sup>41)</sup>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학생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호기심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동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sup>42)43)</sup>

특히, 북한관련 자료가 빈약하고 오래 전 것이 많은 가운데 청소년들은 통일교육 시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북한실상(28.8%), 통일국가 미래(28%) 국내외 정세(11.9%), 남북비교(10.2%) 정부정책(8.1%) 순으로 응답하여<sup>44)</sup>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학교통일교육은 앞으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마다 생활터전이나 지역, 직업, 이탈과정에 따라 경험의 한계가 존재하며 제주지역의 경우 좁은 지역사회로 인해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공개하려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sup>45)</sup>

41) 교재 '50문 50답(남한청소년이 묻고 새터민 청소년이 대답한다)'와 PPT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42) 순회교육 전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비교 분석한 바, 북한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 응답이 11.1%에서 47.2%로,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은 6.1%에서 16.1%로 증가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지도는 6.6%에서 81.2%로 증가하였다.

43) 진행남,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지도자의 역할, 2010 초중등 통일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자료집. 이와 관련한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하면, 탈북자를 활용한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감문을 통해 수업평가를 한 결과 △북한 사회에 대한 편견의 해소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무서운 존재", "우리과 다르게 생긴 사람") 해소는 물론 탈북자와의 만남 자체가 '신선한 충격' △북한사회에 대한 그동안의 무지에 대한 자성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임. 특히 수업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전의 통일교육과 달리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받았다.", "선생님 혼자 수업하는 것보다 수업 내용이 더 생생하다.", "색다르고 재미있었다.", "현실감이 있었다.",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참여도 또한 높아졌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 "교과서의 딱딱한 내용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더 쉽고 재미있었다."는 반응들로 요약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을 참관한 교사들의 평가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임 △특히 탈북자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한 자세한 설명이나 수업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 및 응답이 고무적임. "탈북자의 북한 말씨만으로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함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발적인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은 수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역동적인 수업이었다" △단순히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해당 분야별로 남북한 사회의 비교를 통한 접근방법에 대해 높이 평가함. △탈북자의 설명에 대한 지도교사의 보완적 설명예를 들어, 생소한 북한의 용어 설명이나 요약정리)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나타냄 등.

44) 통일교육협의회,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 2009.

45) 2010년 제주권 탈북학생 멘토교사 연수 자료집 2010.

반면,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올해부터 배출되고 있고<sup>46)</sup>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도 ‘탈북지식인 및 성인역량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출신 교사를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활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sup>47)</sup>

통일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필요한 자기만의 이유를 청소년들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것이다. 천만 가지 통일의 필요성을 찾는 데에 정해진 길은 없다 짧은 시간에 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이자 도구 세 가지를 제시하면<sup>48)</sup>,

첫째, 통일된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은 현실에 의해 제약되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유럽의 공항에서 입출국창구가 EU국과 비EU국으로 나뉘어있고, 국경이라고 생각하는 경계를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이탈리아인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그렇게 당연한 사실을 금강산이나 개성을 오갈 때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분단국가의 국민은 상상할 수 있을까? 세계화된 시대, 더 나아가 우주로 뻗어 나가는 시대, 그리고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문화사회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국경이 내가 갈 수 있는 세상의 끝이었던 시대에 자란

---

46) 작년 배출된 통일교육 전문 강사는 남성 9명 여성 12명으로 총 21명. 통일신문, 2010. 7. 30.

47) 강의 영역이 폭넓어 남북한교육 비교, 북한실상, 북한사회와 교육, 탈북주민의 적응문제, 기타 북한이해 및 통일교육 관련 주제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새터민자립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 통일강사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학교통일교육 현장에 ‘북한이탈주민 전문 통일 1일 교사제’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하루 동안 학교에 머물며 교사와 학생들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체험’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학교 1일 통일강사’로 활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고급취업으로 인식되어 좋고 학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한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탈북 과정에 치중하는 강의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상을 많이 소개하도록 하여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고 지금도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교육의 실상과 문화를 남한 것과 비교하도록 한다. 예컨대 남과 북의 학교 문화의 차이 제도의 차이, 학제와 진학의 차이, 교육 방법의 차이, 교과서 내용의 문장들까지 비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PPT 강의를 하게하고, 예능을 비교할 땐 노래일 경우 직접 부르게 하여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8) 조정아는 세 가지 요소가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정리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종류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세대의 상상력에 기초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상상력을 통해 그려내는 통일된 세상과 지금 현재 자신의 삶과의 관계를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등에 관해 생각해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존재와 상상 속에 존재하는 통일된 한반도 사이에 사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내가 겪게 될 어려움이나 변화는 없을까, 통일이 되면 내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통일을 내 삶에서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이 자신의 문제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지식 주입이나 교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발언이 보장되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통해서이다. 공동제작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전통적 방식의 백과사전 브리태니커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능하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위키피디아의 자발적 분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위키피디아에는 다양한 수준의 참여를 포괄하는 관용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9)</sup>.

‘디지털 유목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학습’ 방법은 교사가 제시한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와 각종 디지털 도구들을 통해 연결되는 수많은 소통의 지점과 접촉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지식과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이다. 교실에서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간에, 통일에 대한 관심과 균형 잡힌 인식은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서로에 의해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을 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49) 조정아, 전계 기사 글에서 재인용. 클레이 서키(2008), 송연석 역,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 갤리온.

50) 그런 의미에서 정치, 사회, 교육 장면에서의 극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독일정치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협약 3원칙이 시사하는 바도 생각하여야 한다. 독일정치교육은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정해 놓고 있는 이 협약은 1976년 가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의 한 학술대회에서 결정된 합의에 근거하고 있

상상력과 사유와 소통, 그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어떠한 정교한 논리나 강력한 통일 구호보다도 더 확실하게 천만 가지 통일의 필요성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통일교육은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에 대해 어느 시점이나 상황에서 국내 외적 변화가 일어나서 겪게 될 미래를 가르치는 교육이다<sup>51)</sup>. 또한 통일교육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도 더불어 생각하는 주제여야 한다.

2010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은 남북분단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제 하고<sup>52)</sup>,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객관적 판단 능력을 신장 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여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sup>53)</sup>

---

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육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강압 금지/교조(敎條)화 금지-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견해를 배우는 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배우는 자는 수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균형성 내지 대립적 논점의 확보 하나의 주제가 사회에서 대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가르치는 자는 주제를 이러한 대립적 입장이 드러나게 서술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배우는 자를 지향함-정치교육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배우는 자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최종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고경민,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p. 46.에서 재인용.

51) 박찬석, 위 기사.

52)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개서. p. 15.

53)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p. 15-19. i)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ii)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iii)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iv)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v)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vi)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시수나, 내용, 방법에 있어서 독립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도덕 등 일부 교과の内容으로 행사나 계기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교육연계성의 결여와 입시위주의 교육 등 인식 부족으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실제 시수는 줄어들고 있다

10여 년 전이나 별다른 없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낙후성과 침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신하고 과학적이며 조직적이고 현대적인 통일교육이 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흥미에만 의존하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이 없지 않고 지나치게 물량에 치중하는 교육내용으로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알려주는 충실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관련 협력체제도 불비한 상태에서 그나마 유관기관들의 연계성은 약하고 교사의 소명의식과 삶의 태도도 강한 편이 아니다 교사들은 일정기간의 훈련이나 교육도 없이 도덕과 교사이면 통일교육을 의례 맡게 되고 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최악의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존의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문제가 통일교육 담당교사만의 몫만은 아니다. 정책, 교육과정, 현실여건 등 청소년 통일의식의 저하를 단지 학교통일교육의 문제로만,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역할과 책무에만 일임하기에는 그 위상에 비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다.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통일교육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상 시수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성과 조직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서 시청각적으로 쉽게 교육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통일교육원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적 재정투자를 과감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창조성이 시급하다. 통일교육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

하다. 통일교육의 교육 중점은 남북관계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통일 필요성을 가르치는데 두어 그 중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에 교사가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교사에게만 일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흐름에 교사가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되는 것도 또한 문제이기에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한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sup>54)</sup>

아울러 ‘디지털 유목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학습’ 방법은 지식 주입이나 교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발언이 보장되는 소통과 공유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통일교육은,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sup>55)</sup>,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힘들이 사람들을 통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기여하게 만드는지를 찾아보고, 상상력과 사유와 소통을 자극하여 통일을 ‘우리’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혜택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유지<sup>56)</sup>’가 아니라, ‘나만의 사유지<sup>57)</sup>’임을 확신할 때, 통일은 진정 ‘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 안의 ‘내’가 만드는 우리

---

54)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 16.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55)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p. 15-16.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외지 확립

56) 사적인 단기적 이익이 공적인 장기적 이익과 충돌할 때 비극적 결말은 불가피하다. 공유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57)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나서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 사람들을 통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기여하게 만드는 것은 통일의 혜택이 자신이 것이 될 때라는 측면에서 전자를 강조한다.

의 일이며 진정 '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통일교육이 될 때 학생들의 통일 의식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2010). “청소년 통일 논리의 교육: 왜 통일이 필요한가?”, 『제주지역 학교 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 고경민(2010).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대비 통일교육: 통일독일의 통일편의 이 주는 함의”, 『제주지역 평화포럼자료집(2010.10.14.)』. 2010.
- 김국현(2010). “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 김용찬(2010).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 김형운(2010). “기존 통일 필요성 논리 내용의 한계”, 2010.
- 박찬석(2010). “학교 통일교육을 생각하며”, 통일신문, 2010. 7. 19.
- 서재진(2010). “통일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2010.
- 양영길(2011). “통일교육의 방법과 실제-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 순회강좌 연찬회 자료집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2011.
- 엄상운(2010). “통일 회의(懷疑)의식의 점증: 배경 분석과 해결방안”, 정책브리핑 자료. 2010.
- 오기성(2002).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통일교육원 연수교재 통일연구 참고자료』. 2002.
- 오충석(2010).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감코리아 2010. 5. 4.
- 윤세라(2009). “학교통일교육을 넘어선 다양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현황과 발전적 제안-북한연구21 워크숍 자료집』. 2009.
- 이미경(2010).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 이정태(2010). “청소년 통일교육 필요성 논리개발”, 2010.
- 조정아(2009). “천만 가지 통일의 필요성”, 공감코리아 2009. 10. 9.

진행남(2010).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지도자의 역할”, 『2010 초중등 통일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자료집』 . 2010

차우규(2002).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통일교육원 연수교재』 . 2002

차우규(2010).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시대』 . 2010년 5월호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2010 통일문제 이해』 .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2010 통일교육지침서』 .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제주권 탈북학생 멘토교사 연수 자료집』 . 2010.

한영숙, 김경자(2010).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주지역 학교 통일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 2010.

통일뉴스, 2010. 5. 10.

통일신문, 2010. 2. 10.

통일신문, 2010. 7. 5.

통일신문, 2010. 7. 30.

남북문화통합교육원(<http://www.togetherkorea.or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http://www.acdpu.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kice.re.kr>)





#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송 상  
중앙여고 교사







#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송 상 (중앙여고 교사)

- I. 문제의 제기
- II.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와 반성
- II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
- IV. 맺음말

## I. 문제의 제기

분단이 된 지 66년째 맞는 해이다. 동시대에 분단된 독일은 통일을 이룬지 이미 20여년이 지났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독일 통일 이전인 1960~70년대의 반공 교육, 1980년대의 통일안보교육은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에는 국력의 상승과 통일 환경의 호전으로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초한 적극적인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적십자 회담, 남북외상회담, 언론사 사장단 방북,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통일 환경은 통일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통일 환경은 학교통일교육에서의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뚜렷이 다른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우선 적대적 대결 관계인 북한을 바로 알리려는 통일교육의 시도이다. 북한 노래 부르기, 북한여행계획 짜기, 북한 민속놀이 소개, 통일 한국의 상징 짓기, 통일 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이다. 수학여행 때 통일관련 기관의 견학, 통일염원 등산, 통일퀴즈대회, 모듬별 통일신문 만들기, 세터민과의 하루 생활 등이다. 통일관련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통일만화 공모전, 통일 UCC 공모전, 통일 글짓기, 통일 나의 주장 발표 대회, 평화통일염원 체육대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등이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다양한 학교 통일교육을 전개했다면, 청소년들의 통일의지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97~'10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 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다.<sup>1)</sup>

또한 2007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교과가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정해져 있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IV단원에서 필수적으로 통일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과목이 검인정 교과목이며, 동시에 선택과목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에 통일 관련 단원이 삭제되어 있어 사실상 통일 수업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독일 통일 이후 현재까지 활발히 전개한 학교통일교육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의지 약화 현상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도덕교과에 통일 관련 단원의 삭제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수행하면서 맞닥친 쟁점들을 진단하고 미래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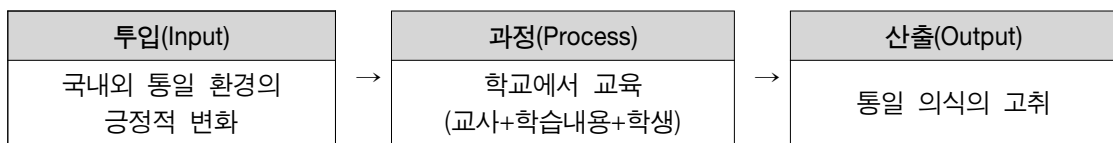
---

1)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통일교육원, 2010.12. p6.

: 통일에 대한 관심이 '97년 71%→'10년 57.3%,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10년 66.6%, 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02년 37%→'08년 18%,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로 나타났다.

## II.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와 반성

교육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은 정부가 통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도하고 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사가 합의된 학습내용을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학생 개인의 삶과 직결된 형태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여 교육 내용을 내면화시키면 상당 수준으로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이후, 더 많은 정보(지식)의 제공과 체험 학습, 통일 수업을 전개했는데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지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통일교육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며,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담당교사의 존치를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중앙부서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다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느끼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입의 측면으로서 통일 환경과 관련된 실태이다.

첫째, '통일 환경'에 대해 일정부분이라도 합의된 해석이 이루어지 않아서 야기되는 쟁점이다.

통일 환경은 동일한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두 축이 합의된 통일 환경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다 정치적 집단의 이분법적 사고는 통일 환경을 예외 없이 Zero-Sum 게임으로 끌어들이고 갈등을 야기하고 만다. 언론이 주도하고 이에 편승한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마저도 방해하고 만다. 마치 하나의 레일 위를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의 갈등만 남는다. 이와 같은 갈등은 학교 통일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왜냐하면 합의된 통일 환경에 대한 해석은 학교통일교육을 안정되게 추진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을 적대적 환경으로 끌고 가야하는가 아니면 북한을 대화적 환경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립적 갈등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은 정부정책 홍보에 머물고 있다.’는 쟁점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서해교전이 있었지만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햇볕정책)이 교육의 주를 이루었고, 참여 정부에 와서는 이전 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번영이 덧붙여졌으며,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한 통일정책과 방향은 곧바로 일선 통일 담당교사들의 통일교육에 영향을 끼친다. 교사들은 ‘지난 정부의 화해·협력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가르치다가, 새 정부에서는 다시 안보가 강조되자 이를 따르는 것이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런 고민도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의 약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과정의 측면으로서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이다.

첫째, 학교통일교육의 급속한 영향력 상실이다.

<표 01>은 최근에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01. N=150명>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⑤
1	학교에서 받은 통일 교육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5%	40%	45%	26%	17%	43%	12%
2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으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까?	9%	21%	30%	30%	26%	56%	14%
3	학교 통일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느낍니까?	9%	19%	28%	38%	19%	57%	15%
4	문항 1, 2, 3에서 ①번과 ②번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89% : 통일교육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 운영 출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배운 기억이 없어 모르겠다.						

1번 문항의 결과는 절반의 학생들이 학교통일교육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2번 문항의 결과는 70% 학생이 학교통일교육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3번 문항의 결과는 72% 학생이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설문 결과는 2000년도의 설문 결과<sup>2)</sup>와 마찬가지로 학교통일교육의 교육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 통일 수업 내용이 비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이념, 체제, 통일방법 등의 통일문제는 전문가들도 이해와 예측이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내용에서는 남북의 사상 이념, 체제는 합치점을 찾기 어렵다.<sup>3)</sup> 따라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상당하다. 이러한 비교 중심 교육 내용은 북한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데 부정적인 기능을 주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비교와 차이 중시 학습내용으로 인해 통일 교육은 고통을 주고 자신의 삶과는 괴리된 생각을 갖게 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려 학교통일교육의 비

2)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하여, 전교조 제주지부 연수자료 2000. 10. p19.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에 전교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⑤
학교에서 받은 통일 교육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4.2%	28.8%	33.0%	42.7%	9.3%	52.0%	15.0%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으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까?	7.5%	34.8%	43.9%	33.5%	11.1%	44.7%	11.5%
학교 통일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느낍니까?	7.8%	22.3%	30.1%	36.1%	19.3%	55.4%	14.5%

3) 개정 전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도덕 교과 통일교육 관련 단원

학교급 학년	예상 수업시수	단원명	하위 내용 요소
고등 학교 1학년	17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분단의 과정</li> <li>•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li> </ul>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li> <li>•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li> <li>•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li> </ul>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동체의 당면과제와 해결</li> <li>• 통일한국의 미래상</li> <li>•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 상</li> </ul>

효율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셋째,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이다.

상당수 청소년들은 통일 관련 수업은 학교 정규고사를 위한 필요악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은 단지 암기하여 답안지 작성을 위한 정보로 취급하고 만다. 이런 인식은 통일 수업을 교과서의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기간 동안에 잠시 학습하면 되는 추구(芻狗) 같은 교과목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의 상봉 동영상을 투입하면 학생들은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내면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관심은 시험 문제의 답일 수 있는 '인도주의 차원의 통일 당위성'의 글자만 기억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통일 관련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몫이 일정부분 있다. 수업을 학생의 내신을 관리하는 방편으로 학생들에게 심어놓은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 행사의 형식화, 타성화(惰性化)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똑 같은 행사를 되풀이 경험하고 있다. 매해 6월이면 초중고가 일제히 글짓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표어 짓기, VTR 감상하고 소감문 쓰기, 자기주장 발표 대회, 강연, 전적지 견학 등의 행사를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인데 매해 같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존 것을 답습하는 통일 관련 행사는 흥미와 관심의 대상과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미흡이다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공감대가 결여된 교과서 위주로 되어 있어 학생들 수준과 관심에 부합되는 보조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는 표준화된 통일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sup>4)</sup> 또한 자료가 보급되어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

4) 이미경,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통일시대, 2010년 5월호

여섯째, 학교통일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학생생활지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여 수행한다. 그런데 학교통일교육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것은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은 시급하다.

일곱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덕 교과에 통일 관련 단원이 삭제되어 있어 사실상 통일 수업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집중 이수제를 통한 범교과적 학습으로 전 교과에서 통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가르쳐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에서도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교과부 설명에 의하면 도덕 교육 및 인성교육은 특정교과에서 가르치기보다 모든 교과를 통해 지도해야 할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집중이수를 통해 “도덕교육, 인성교육, 정서함양 등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sup>5)</sup> 그러나 범교과 학습의 영역은 기본 35개(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통일교육 등)에 녹색성장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 교육이 추가되어 총 38개로 범위가 너무 넓어, 통일교육을 인위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 Ⅲ.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통일 이후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실태를 고등학교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통일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입시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과과정 속에서 학교통일 단원 수업은 학생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고 형식적 타성적인 통일 관련 행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트렸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통일수업은 원천적으로 실행하기 어

---

5)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통일교육원, 2010.12.



렵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통일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6)</sup>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 교육 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고 절실한 과제이다 이 과제는 통일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는 통일교육과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건드려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통일교육전문가들이 기피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은 연령, 직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고, 학문 분야별로, 또는 교과별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실시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과간, 학년간, 학교급간 내용 중복이 심하고, 학습자 특성과 괴리된 통일교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둘째, 범교과 학습 속에 통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과과정은<sup>7)</sup> 교과목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학생의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여건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은 증가할 우려가 많으며 사실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미미하게 된다. 이처럼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방안은 범교과 학습 속에서의 위치 확보이다

예컨대 현행 입시 과정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

6)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연수자료. 제주도교육청 주최 2002. 11.

7) 고등학교 편제와 시간배당기준

때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이 보다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통일문제 관련 주제의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창안하고 참여시킴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 협동 학교 설립 운영이다.

최근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 01>에서 문항 1, 2, 3에 긍정적으로 (①과 ②에) 답한 학생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 학생들의 89%는 중학교 때 통일교육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 출신이었다.

이런 결과는 한시적인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를 지역별로 몇 군데를 선정하여 통일교육 협동학교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 예산 투입과 교육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통일교육의 질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둘째에서 제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체험과 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이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과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군)		
교과(군)	기초	국어	15(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10)	35(2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10)		
		예술 (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16(12)		
	소계		116(72)			64
	창의적체험활동					24
총이수단위				204		

1. 제주오현고등학교의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7년간 지속된 국토 순례 도보 행군이다. 모범적 활동인데 중단된 상태이다.

주된 활동 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국토 종단 반도의 허리인 민통선 지역 횡단, 백두산 등정 및 두만강 인접(도문) 답사, 금강산 등정이다.<sup>8)</sup> 이를 아래 주석에 소개한다.

2. 제주도 도덕윤리교과회에서 실시하는 '통일 퀴즈 대회'이다.

올해로 회재 맞이하는 대회이다. 주된 활동 내용은 통일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참가학생들(팀)이 이 책자 속 통일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학습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퀴즈 방식은 골든벨 식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로 승화되어 퀴즈대회 뿐만 아니라 포스터 만화, UCC 제작 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등을 전시하고 있다.

3. 가칭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학생 통일단' 등이다.

이 방안은 통일교육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만약 이 단체가 단순히 정부 정책을 따라가거나, 지원 단체 또는 학교의 강권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북한의 "소년단"에 비유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RCY, 홍사단, 스카웃 등과 같은 기존 단체처럼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

8) 제주오현고등학교의 국토 순례 계획서

1. 목적

- (1) 분단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지 고양
- (2) 우리 나라에 대한 국토애와 애국심 함양..

2. 개요

(1) 내용

제7차 국토 도보 순례 및 금강산 등반  
(경북 구룡포 장산곶 →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구 257km)

(2) 기간

2000년 7월 13일 -- 2000년 7월 19일 6박 7일 도보 행군...금강산 등반

(3) 대원 : 1,2학년 중 희망 학생....

5. 경로

1차 : 1991년 7월 29일 - 8월 4일 (6박7일, 196km) 제주도 도보일주..

4차 : 1994년 7월 19일 - 7월 23일 (4박5일, 71km) 국회의사당 - 임진각 도보 행군

5차 : 1996년 7월 19일 - 7월 28일 (9박 10일, 360km)

강원도 속초 - 임진각(155마일 휴전선) 국토 도보 행군

이 단체의 통일교육 주요 활동의 예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 :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 조직 대상 : 청소년(중고교의 학생들) 중심으로 우선 조직하고 점진적으로 대학생, 일반까지 폭을 넓히는 것이다.
- 가입 방법과 조직 확장
  - 학생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교사의 추천으로 한다.
  - 웹사이트(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입을 받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장시킨다.
  - 고문 제도를 두어 올바른 방향의 통일 의식과 활동을 전개되도록 한다.
- 주요 활동
  - '통일 염원의 날' 제정
    - 4/4분기로 3월 1일, 6월 25일, 8월 15일, 1월 1일
    - 4개로 나눈 이 날과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여 실천한다.
    - 예를 들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에는 제주에서는 성산일출제 등과 연계(전국 각 곳에서 동시에)하여 '통일 염원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는 것이다.
  - 북한 돕기 모금 활동
    - '학생 통일 끈'을 중심으로 1년 간 준비한 각종 자료들을 학교 복도 같은 곳에 비치하여 홍보를 하고
    - 자발적인 북한 돕기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 통일 인간 띠 잇기
    - 마을 축제나 8월 15일 같은 날을 '통일 염원 날'로 정하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탈북자(귀순용사)와의 야영
    - '이런 활동은 왜 하는가?'에 대한 사후지도가 꼭 필요하다
    - 이에 대한 결론은 학생들의 토의나 토론을 거쳐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북한 놀이 체험, 북한 음식 장터, 북한 노래 배우기, 통일 오름 가꾸기, 통일의 풍선 날리기 등

## IV.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통일교육은 정부의 보호막에 안주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도덕교과에서 통일단원이 삭제되어 교실 안 통일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있어 통일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다고 국민의 지상과제인 통일교육을 손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일교육의 상승 단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순간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 길은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길이 쉬어질 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당면한 과제는 통일을 맞이할 청소년들의 통일의지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의지에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통일교육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지를 생활화하는 경험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환언하면 교실 안에 배운 통일교육을 교실 밖의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통일의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형제끼리 싸울 때가 더 증오스럽고 적개심이 깊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그런 상태로 이어왔다. 이런 고리를 끊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현재보다 더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전념하는 이 땅의 교사들의 땀방울이 더없이 소중하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26인 지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경실련 통일협회 위임. 1997.
- 김광배, 고등학교 통일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찬성 외, 통일 교육론, 백의 출판. 2000.
- 추병완 외, 통일 교육론, 도서 출판. 2002.
- 한만길 외, 남북한 화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 연구원. 2002.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2007.
- 김훈념,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2009.
-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개정, 통일부. 2001.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 참 고 자 료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방'메뉴) 등재 통일교육자료 목록(www.uniedu.go.kr)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학교통일교육발전방안과 사례	2011.02	'08-'10년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집에서 발췌 정리	교사용	전 차시 공통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2011.02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분석과 청소년 통일교육 방향 제시	교사용	
(IPTV 특별기획) 통일의 작은 실험실 셋넷학교	2010.10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과정 이해	공통	
(IPTV 특별기획) 통일리포터! 통일독일가다	2010.10	통일독일 모습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조망	공통	
통일문제이해	2010.05	통일방안,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제질서, 통일환경	교사용	
북한이해	2010.05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별 실상	교사용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9.02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실상 관련 주요 사항	교사용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2007.01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분단국 사례 등	교사용	
분단의 20세기 통일의 21세기 [ 동영상, 28분 ]	2005.03	한반도 분단과정, 남북관계 발전현황, 통일의 비전 등을 문답식으로 설명	공통	
한라에서 백두까지(플래시게임)	2008.12	문제를 풀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기	초/중	
새 The bird [ 동영상, 20분 ]	2006.05	남북의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의 사연을 각색(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중	민족분단의 과정
가지미의 눈물 [ 동영상, 14분 ]	2007.07	이산가족 할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이 어린 소녀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등	
가지미의 눈물 [ 동영상, 14분 ]	2007.07	가지미의 눈물 자막·수화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초등	
가지미의 눈물(영어판·일어판) [ 동영상, 14분 ]	2008.12	가지미의 눈물 영어·일어 자막 삽입본(재외동포용)	초등	
북한의 교육제도 [동영상, 22분 ]	2002.11	북한의 학제, 교과목, 학교생활 등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3	북한의 교육정책, 학제, 김정일시대 교육의 특성	교사용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동영상, 21분]	2008.11	북한 학생의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공통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동영상, 20분]	2008.11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일과	공통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 동영상, 23분 ]	2005.06	이슬이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겪는 이야기(아동·청소년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초등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녀(만화)	2007.12	남북의 소년소녀가 게임을 통해 만나고 친해지면서 통일을 염원하게 됨(아동·청소년용 만화)	초/중	
북한의 선거제도 [ 동영상, 31분 ]	2004.02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공통	
남북문화이해지 [ 동영상, 80분 ]	2002.12	문화이해지 기법을 이용한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통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동영상, 33분 ]	2003.11	조선중앙TV 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상	공통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 동영상, 23분 ]	2002.11	북한 가요 7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상, 북한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 및 실제 생활모습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 동영상, 47분 ]	2004.02	북한 만화의 주제별 유형분류, 수업자료 활용경험 등	공통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 동영상, 36분 ]	2004.02	북한 주민의 연애, 결혼, 육아, 가정생활 및 경제난 이후 변화	공통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2003.12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인식현황, 해방전후 한반도 언어생활환경, 로동신문 〈우리말다듬기지상토론〉 분석	교사용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4.05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제도, 개혁사례, 북한의 농업시스템 및 개혁의 조건과 과제 등	교사용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02	북한의 식량난, 주식, 먹거리 문화	교사용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09	북한 역사관의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교류,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교사용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2005.09	남북 예술의 특징, 분단 후 변화, 남북 교류현황	교사용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2005.0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사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성과	교사용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2007.02	북한의 에너지정책, 공급구조, 수급현황	교사용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7.01	북중 변경무역, 북한의 시장	교사용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09	북한의 IT중시정책, 정보화 현황 및 실태, 정보통신 부문 남북교류협력	교사용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2007.0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계획, 수준, 특징, 남북협력	교사용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 동영상, 23분 ]	2002.11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배경 및 현황	교사용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09	북한의 IT 산업현황, 남북한 IT 용어 비교	교사용	
북한의 의료실태	2007.02	북한의 고려의학체제,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실태	교사용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12	북한의 관광환경, 정책, 기구,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교사용	
북한의 체육 실태	2008.07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교육 및 선수양성, 조직, 시설, 대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교사용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북한의 문화재 정책·관리실태·현황, 남북교류 방안	교사용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2007.02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현황, 과제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7.01	북한의 환경관, 정책, 실태, 남북교류현황	교사용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04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회의 변화상,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교사용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2007.12	북한의 법체계, 규범과 현실, 입법동향, 법제정비 평가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대남전략	2009.12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와 노선, 전개양상, 향후전망	교사용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2002.12	통일독일 주민 간 심리적 갈등 현실을 통해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일의 시사점 도출	교사용	민족분단 극복 방향
갈등을 넘어 통일로	2004.09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통일 전후 갈등 및 통합 사례, 남북통합과정과 공동체의식 연구	교사용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03	유럽통합 과정, EU 조직체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교사용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12	독일의 통일과정과 분야별 통합현황	교사용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07	DMZ에 얽힌 과거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교사용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 동영상, 20분 ]	2010.10	6.25 전쟁의 교훈과 분단현실 이해, 통일의지 함양	공통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05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요 쟁점과 전략방향	교사용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동영상, 9분 ]	2008.11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	교사용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상생공영 시행시 모음집	2008.12	「상생공영 4행시 짓기」 공모전 모음집 수상작 및 상생공영정책 10문 10답	중/고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 동영상, 11분 ]	2007.12	헤미라는 고등학생이 꿈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상상하게 됨(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중/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 동영상, 11분 ]	2008.06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수화·자막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중/고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 동영상, 7분 ]	2009.12	헤미와 탈북청소년 승준의 이야기	중/고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	2002.06	여성 통일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방법	교사용	기 타
통일·남북관계 사전	2004.07	통일, 남북관계 관련 주요용어 및 개념	교사용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2005.07	각종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남북관계 분석	교사용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대북협상에 대한 관점, 특수성과 어려움, 북한의 협상행태, 남북 협상 문화 등	교사용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06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법사회학적 접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교사용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2007.02	남북 인적교류 정책, 현황, 의의	교사용	
2008 통일교육 웹진(Unizine)	2008.12	2008년도 월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종합본	교사용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